

中國의 改革 開放과 韓中經濟協力の 未來

1995. 4

金時中 編



對外經濟政策研究院

中國의 改革 開放과 韓中經濟協力の 未來

金時中 編

1995. 4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序 言

中國은 1978년 이후 經濟體制 改革과 對外開放이라는 사회적 실험을 실시해 오고 있다. 中國의 改革·開放은 다른 舊社會主義圈 國家의 改革과 구별되는 獨特性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中國 특유의 융통성을 갖고 추진되어 온 점진적인 改革·開放政策은 지난 16년간 연평균 10%에 가까운 高速의 經濟成長을 달성하여 세인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中國經濟는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 여러 構造的 문제도 안고 있는데, 특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國有企業의 非效率性的의 해결은 中國의 政策當局에게 至難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中國은 對外開放의 측면에서 새로 발족한 WTO 가입이라는 과제를 놓고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1992년 韓中修交 이후 양국간 經濟交流가 급속히 확대되는 동시에 국내에서의 中國經濟에 대한 이해가 크게 진전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中國經濟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편적인 情報나 직관적 豫測이 무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本 研究院이 지난 1994년 12월 20일 中國의 권위있는 학자들을 초청하여 ‘中國의 改革·開放과 韓中經濟協力的 未來’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本 세미나에서는 여섯 주제에 대한 토의가 있었는데, 그 중 네 주제는 中國經濟의 改革·開放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두 주제는 亞·太協力 및 省次元에서 본 韓中經濟協력에 관한 것이었다. 각 주제에 대한 토의는 중국측 참가자가 論文을 발표하고 한국측 참가자가 論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중국측 발표자들은 中國의 권위있는 경제연구기관인 國務院 發展研究中心의 孫尙淸 主任을 비롯한 同 研究所의 중견 연구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밖에 湖南省 黨書記인 王茂林씨가 특별히 湖南省과 韓國과의 經濟協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한국측 참

가자들도 中國經濟 研究의 專門家들로 구성되어 높은 수준의 토론이 가능하였다.

本 資料는 이 세미나에서 발표되었던 論文과 論評을 정리한 것이다. 본 자료의 편집은 이 세미나의 개최를 주관하였던 本 研究院의 金時中 博士가 담당하였으며, 중국어 논문의 번역은 金時中 博士와 本 研究院 地域情報센터의 韓亨九 調査役, 申晶植 研究員이 수고하였다. 이 자료가 中國經濟와 韓中經濟協力과 관련하여 政府, 學界, 業界에 훌륭한 參考資料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1995년 4월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院長 柳 莊 熙

目 次

開會辭 / 柳莊熙 院長 (對外經濟政策研究院) 7

祝 辭 / 張庭延 大使 (駐韓 中國大使) 9

第 1 主題 :

中國 經濟體制改革의 새로운 形勢와 任務 13

發表者 : 孫 尚 清 (中國 國務院 發展研究中心 主任)

討論者 : 金 益 洙 (對外經濟政策研究院 研究委員)

第 2 主題 :

中國의 經濟發展과 인플레이션 29

發表者 : 金 仁 雄 (中國 國務院 發展研究中心 高級研究員)

討論者 : 李 根 (서울大學校 教授)

第 3 主題 :

中國 湖南省과 韓國經濟의 協力展望 43

發表者 : 王 茂 林 (中國 湖南省 黨書記)

討論者 : 千 辰 煥 (럭키금성그룹 海外事業推進委員會 社長)

第 4 主題：

亞·太 經濟協力과 中韓 經濟關係 51

發表者：史 敏 (中國 國務院發展研究中心 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
所長)

討論者：吳 勇 錫 (慶星大學校 教授)

第 5 主題：

開放型 經濟를 目標로하는 中國의 對外開放政策 71

發表者：張 小 濟 (中國 國務院發展研究中心 研究員)

討論者：金 時 中 (對外經濟政策研究院 研究委員)

第 6 主題：

中國 國有企業改革과 構造調整의 相互結合 89

發表者：張 文 魁 (中國 國務院發展研究中心 副研究員)

討論者：徐 錫 興 (釜山工業大學校 教授)

세미나 日程 101

開 會 辭

柳 莊 熙 院 長

(對外經濟政策研究院)

저는 오늘 우리 對外經濟政策研究院이 “中國의 改革·開放과 韓中經濟協力の 未來”를 주제로 한 韓中 國際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석하신 여러분께 본 研究院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中國은 지금 社會主義市場經濟를 내세운 經濟體制의 改革과 과감한 對外開放 政策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改革과 開放은 中國이 지난 16년간 연평균 9%이상의 괄목할만한 經濟成長을 이룩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 中國은 개혁과 개방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國有企業의 非效率, 金融 및 財政構造의 歪曲 등과 같은 여러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改革과 開放이 진전됨에 따라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中國의 改革·開放과 고도성장은 韓國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 8월의 역사적인 韓中修交 이후 양국간 경제교류는 급속한 발전을 계속해 왔습니다. 한 예로 韓國의 對中輸出은 지난 89년의 4억 4천만달러에서 93년에는 51억 5천만달러로 가히 폭발적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韓國의 對中輸入도 89년 17

억달러에서 93년 39억 3천만달러의 비약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양국간 경제교류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賦存要素 및 經濟發展 段階의 상호 보완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양국간 경제관계가 더욱 밀접해질 것을 예견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금년 3월 金泳三 大統領의 중국방문과 10월 李鵬 總理의 한국방문을 계기로 양국간의 産業協力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양국간의 經濟交流를 더욱 활성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세미나는 韓國經濟에 미치는 中國의 중요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中國經濟 및 양국간 經濟交流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中國經濟에 대한 理解를 심화하고 양국 經濟關係가 질적으로 보다 발전·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인은 특히 양국간의 經濟協力이 東北亞 地域의 장기적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의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본 세미나를 위해 張庭延 駐韓 中國大使가 특별히 나오셔서 축사를 해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 세미나가 한·중 양국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의미있는 場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祝 辭

張 庭 延 大 使

(駐韓 中國大使)

존경하는 柳莊熙 원장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저는 오늘 對外經濟政策研究院이 주최하는 “中國의 改革·開放과 韓中經濟協力の 未來”라는 제목의 세미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본 세미나의 개막을 축하드립니다.

韓中 修交가 이루어진지 이미 2년이 되었습니다. 中國과 韓國의 정부와 인민간의 공동노력에 의하여 그동안 양국 지도자간의 우정어린 방문이 있는 등 中韓關係는 전면적이고 깊은 교류가 있어왔습니다. 특별히 中韓간의 經濟協力は 그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관계를 보더라도 이러한 빠른 성장은 그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中韓 貿易額이 금년에는 100억달러를 넘어 110억-1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같은 中韓간 경제교류의 빠른 발전은 국가간의 관계에서 경제가 우선되는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에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어 상호간의 이해가 충분히 깊지는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韓國의 여러분들이 中國의 改革·開放의 현 상황을 이해해주신다면 감사하겠으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中國의 改革·開放의 역사는 매우 짧아 社會主義市場經濟 체제가 수립된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색단계에 있

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中國 國務院 發展研究中心의 孫尙淸 主任, 湖南省의 王茂林 黨書記, 그리고 中國의 여러 학식이 높으신 교수님들께서 참석하시어 中國의 改革·開放과 그에 따른 문제를 자세히 사실적으로 소개하며 中國의 經濟 및 中韓 무역관계 발전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피력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본 세미나에서 우리는 韓國의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미나는 中韓 關係를 개선하고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1세기를 전망하는데 있어 中韓關係 심화는 兩 國民의 공동이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양 국민의 바람에도 부합될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東北亞 및 아시아의 평화, 발전, 안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공헌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는 이러한 공동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第 1 主題

中國 經濟體制改革의 새로운 形勢와 任務

發表者：孫 尚 清 主任(中國 國務院 發展研究中心)

討論者：金 益 洙 博士(對外經濟政策研究院)



中國 經濟體制改革의 새로운 形勢와 任務

孫 尚 清

(中國 國務院 發展研究中心 主任)

1994년도 中國의 經濟成長率은 11%로 추정되는 바 이로써 中國은 최근 3년간 계속 두 자리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이러한 고도경제성장은 국민경제의 종합적인 實力을 증대시켰으며 또한 亞·太地域의 경제발전에도 공헌을 하였다.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지속적인 中國經濟의 고도성장이 經濟體制改革을 확대하는 상황하에서 이룩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안정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얼마전 열린 全國經濟工作會議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각종 改革措置를 공고히 하고 정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1995년도에는 改革의 重點을 國有企業에 둘 것임을 확정한 바 있다.

一. 1994년도에는 社會主義市場經濟 體制의 건립을 목표로 하는 각종 개혁조치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금년도에 中國은 財政·租稅, 金融, 外換, 對外貿易, 投資, 流通 등 각 방면에 걸쳐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財政·租稅改革에 있어서는, 分稅制(租稅를 中央稅와 地方稅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제도)가 기본적으로는 이미 구축되었으며, 財政分級分稅體制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市·縣까지 확립되어 있다. 增值稅(일종의 附加價值稅)를 중심으로 하는 流通稅制를 시행하였으며, 內國企業所得稅를 통일시켰고, 個人所得稅를

한층 정비하였으며, 몇몇 기타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는 조정을 가했다. 새로운 조세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의 재정수입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金融改革에 있어서는, 中央銀行의 기능을 강화하고 여신에 대한 중앙정부의 거시조정 역할을 증대했으며 政策性 銀行을 설립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로써 통화발행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金融秩序가 한층 호전되었고, 金融形勢는 안정을 유지하였으며, 도시와 농촌주민의 저축이 대폭 증대되었다.

外換改革에 있어서도 기대하던 성과를 거두었다. 換率單一化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人民幣의 對달러 가치가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하였다. 對外貿易에 있어서는, 국제규범에 따라 관련 政策·法規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주동적으로 수입관세율을 인하하였고, 수입허가증 제도와 쿼터관리 등 非關稅 輸入制限을 축소하였으며, 對外開放을 보다 확대하였다. 1994년도 무역액은 2,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中國政府는 고정자산투자에 대한 巨視的 指導를 강화하였다. 또한 각종 투자항목을 투자주체와 투자범위 및 투자효율에 따라 基礎性·競爭性·公益性的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國家開發銀行이 기초항목에 대한 政策性 投融資 機能을 담당하도록 하였던 바, 이는 투자규모를 통제하고 투자구조를 합리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價格改革과 流通體制改革을 계속 추진하였으며, 식량·면화·석유·석탄 등 기초상품의 가격을 상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價格調整으로 상품의 가치가 적정수준으로 가격에 반영되어, 기초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자체적인 발전능력이 증강되었으며 農民들이 생산에 대하여 적극성을 가지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시행된 각종 중대한 改革措置들은 中國이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의 건립을 향하여 중요한 일보를 내딛었음을 의미한다. 한 해 동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중대한 改革措置들을 시행하면서도 사회적인 安定을 유지하고 高度 經濟成長을 이룩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앞으로 고도

경제성장 추세를 유지하면서 改革을 深化해 나가야 하는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二. 물가상승폭을 억제하였으며, 巨視管理體制 改革을 계속 공고히 하고 완비해 나갔다.

1994년도에 中國이 시행한 巨視管理體制 改革은 경제발전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주요 거시경제지표 중에서 물가상승률의 경우 목표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994년 1년간 小賣物價指數가 20% 상승하여 연초에 계획한 목표치 9%를 훨씬 상회할 것이다. 국제적인 경험과 中國이 改革·開放 이래 체험한 바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에 의존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목이 마르다 하여 독이 든 술을 마시는 것과 같이 그 결과는 社會安定과 장기적인 經濟發展에 좋지 못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中國政府는 인플레이션으로 생길 수 있는 준엄한 사태를 인식하고,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물가상승의 기세를 단호히 억제해 나갈 것이다.

금년도 中國의 물가가 대폭 상승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 수요증대와 원가상승 등의 이유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었다.

1. 수년간 固定資產投資와 消費基金이 빠른 속도로 증가됨으로써 총수요가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었고, 총수요의 증대가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금년도에 비교적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다한 社會固定資產投資는 물가를 상승시킨 기본적인 원인이었다.

2. 금년도 賃金基金의 증가폭은 勞動生産性의 증가폭을 훨씬 상회하였는 바 이로써 임금코스트가 대폭 상승되었다.

3. 精製油, 농산품(糧穀, 綿 등) 및 일부 서비스요금의 가격을 인상하는 등 中國政府가 취한 일련의 價格調整 역시 물가상승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農產品價格의 인상분은 小賣物價指數에서 약 10% 포인트를 점하고 있다..

4. 流通秩序가 문란하고 流通部門에 대한 효과적인 행정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가격을 마음대로 인상하고 폭리를 취하는 불법행위가 나타났는 바, 이 역시 금년도 물가상승에서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 되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국민경제발전 추세를 유지하며, 개혁을 위한 양호한 경제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中央政府는 다음과 같이 巨視調整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첫째, 貨幣供給量을 통제하고, 신용대출의 규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利率을 적정수준으로 올릴 것이다.

둘째, 財政緊縮政策을 실시하고, 財政·租稅改革에 관한 각종 시책을 정비하며, 불합리한 稅收減免을 취소하고, 세금징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個人所得稅의 징수를 강화하는 동시에 經常性 지출을 엄격히 통제할 것이다.

셋째, 社會固定資產投資의 規模를 엄격히 통제하고, 消費基金의 팽창을 억제하며, 投資構造의 조정을 강화하고, 農業·水利·重點建設·企業技術改造에 대한 투자비중을 제고하며, 신규 투자항목을 억제할 것이다. 外資利用에 있어서는 규모관리를 채택하여 構造調整과 效率提高가 가능할 만한 수준으로 투자규모를 증대시킬 것이다.

넷째, 供給을 증대하여 需給不均衡의 폭을 줄여나갈 것이다. 農業基盤施設, 營農技術 및 채소류생산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여 농산품의 공급을 증가시키고, 輸入制限을 점차 철폐하여 수출입에 있어서 均衡을 유지하며, 國內供給이 부족한 상품을 수입하여 물가상승을 억제할 것이다.

다섯째, 流通制度를 확립하여 유통부문에 대한 監督管理를 강화하고, 유통질서를 整頓하여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며, 市場活動을 규범화하여 폭리를 취하거나 앞다투어 물가를 올리는 행위를 근절하고, 질서가 있는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상기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物價上昇率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며, 동시에 국민

경제 성장율은 '八五計劃'(제 8차 5개년계획: 1991-1995년)기간의 평균치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總需給 均衡을 유지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메카니즘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巨視經濟管理 改革을 완비하고 심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내년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면에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첫째, 金融體制 改革에 있어서는, 中央銀行의 通貨政策 운용능력을 증강하고, 資産과 負債의 비율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각종 專業銀行과 商業銀行의 資産 負債 상황을 엄정하게 감독하고 심사할 것이다. 政策金融과 商業金融을 분리한다는 원칙하에 政策性業務와 商業性業務의 경계를 정하고 두가지 업무를 분리할 것이다.

둘째, 財政·租稅體制 改革에 있어서는, 새로운 租稅制度하의 각종 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租稅制度를 위반하는 각종 행위를 바로잡을 것이다. 增值稅와 消費稅의 徵收管理를 강화하고, 輸出租稅 還給制度를 개선·완비하며, 각종 탈세행위를 타파할 것이다. 세금 감면정책을 명확히 하고, 地域別 혹은 業種別로 구분된 稅金減免制度(특히 關稅減免制度)를 철폐할 것이다. 個人所得稅法을 신중히 집행하고 高所得者의 個人所得稅 징수에 특히 중점을 둘 것이다.

셋째, 投資體制 改革에 있어서는, 計劃管理機能을 전환하고, 國家의 投融資 범위를 명확히 하며, 一般 加工工業과 競爭性 基礎産業의 건립은 점차 市場機能에 맡기고, 기업이 投資主體로써 投融資 행위를 하도록 할 것이다.

三. 1995년도에는 國有企業의 改革에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改革體制下에서 중국의 國有企業은 비교적 완비된 현대적 工業體系를 구비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 國有企業에 몇 가지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國有企業의 位相과 役割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첫

째, 國有企業이 國民經濟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다. 1992년에 이르러 社會總生産額에서 國有企業이 차지하는 비중이 41.3%로 줄어들었으며, 工業總生産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1%로 줄어들었다. 둘째, 國有企業의 赤字가 심각한 상황에 왔다. 금년도에 적자기업의 수는 40%를 넘어섰으며, 資産比重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적자가 20%를 초과하였다. 셋째, 1993년 國有工業企業의 부채비율이 70%에 이르는 등 國有企業의 負債比率이 과다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國有企業 특히 國有 大中型企業은 여전히 國民經濟의 주요한 支柱이며, 에너지·교통설비·주요원자재 및 공업기술장비를 생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國家財政의 가장 중요한 收入源이다. 國有企業의 生産比重이 저하되는 상황하에서도 國有企業의 이익과 세금납부액(‘利稅’)은 여전히 전체 工業企業의 2/3를 차지하며, 純固定資産은 전체 공업기업의 75%를 점하고 있다. 1993년 國有 大中型企業의 經濟效率 綜合指數, 資金利稅率, 全員 勞動生産率은 모두 全國工業 平均水準을 상회하였다. 현재까지 투입된 생산요소를 기준으로 하거나 앞으로 투입될 생산요소를 보더라도 國有經濟가 基礎産業과 전체 國民經濟에 있어서 차지하는 주도적인 위치는 여전히 강화될 것이다.

여기서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國有企業의 役割을 평가할 때 왕왕 사회 효율면에서 國有企業이 기여한 공로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國有企業 특히 國有 大中型企業은 國家 財政收入의 증가, 基礎商品의 가격안정, 충분한 취업의 보장이라는 책임을 담당하고 있으며, 社會保障과 社會公益事業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몇몇 중대한 改革·開放措置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기타 非國有經濟 부문이 빠른 성장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國有企業 改革은 中國의 經濟發展과 體制改革의 성패에 직결된다.

첫째, 公有制를 중심으로 하는 社會主義經濟制度를 견지해 나가는 위해서는 國有 大中型企業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社會主義市場經濟는 公有制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경제체제로 이 점에 있어서 資本主義市場經濟와는 구분된다. 公

有制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12억 인구의 의식주문제가 해결되고 兩極分화가 방지되며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물질적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면적이 넓고 산업별 혹은 지역별로 경제발전의 수준차가 큰 多民族國家에서, 國有 大中型企業이 활성화되어야 中央政府가 巨視調整을 통하여 國民經濟를 지속적이고 빠르게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으며, 또한 경제발전을 하는 가운데 地域隔差를 축소하고 民族團結을 유지하여 장기적인 安定을 시현할 수 있다.

둘째, 社會主義市場經濟의 건립을 위해서는 國有企業 改革에 비약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 社會主義市場經濟 體制에서는 중앙정부의 巨視調整하에서 市場을 통해 기본적인 자원분배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企業 특히 國有企業으로 하여금 獨立的으로 採算하고, 自主的으로 經營하며, 規定에 따라 納稅하고, 스스로 損益에 責任을 지는 經濟實體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뜻에서 볼 때, 현대 기업 제도의 건립에 있어서 본질적인 특징은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가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시장주체로 기업을 塑造하는 것이다.

셋째, 다가오는 21세기에 中國이 국제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國有企業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計劃經濟下에서 형성된 國有經濟가 市場經濟로 이입되면서 구조적으로 비합리적인 현상이 보다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러 國有企業의 經營效率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國有 大中型企業은 中國의 기초산업과 주요 산업 분야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격렬한 국제경쟁하에서는 기초산업과 주요산업에 첨단기술이 어떻게 응용되고 있느냐에 따라 一國의 國際經濟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결정된다. 中國이 國際分業에의 참여를 점차 확대해 가고있는 상황하에서, 國有企業의 改革과 發展이 產業構造 調整과 技術進步에 연결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國際競爭에서 中國이 차지하는 위치를 결정할 것이다.

현재 中國의 國有企業은 負債가 과다하고, 사회적 責任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며, 設備가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體制上的 원인도 있어 경영이 비교적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현상을 바꾸기 위하여, 내년도에 우리는 企業改革 면에서 중대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九五計劃’(1996-2000년)기간동안 企業改革을 기본적으로 완료할 것이다.

國有企業 改革의 방향은 財產權의 명확화, 權限과 責任의 명료화, 政府와 企業의 분리, 과학적 管理 등 社會主義市場經濟 體制가 요구하는 현대적인 기업제도를 건립하는 것이다. 이는 여러가지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시스템작업으로, 中國은 현재 이방면에 경험이 모자라는 바 改革을 추진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내년도 企業改革의 주요내용은 ①企業이 經營自主權을 갖도록 하고, 기업의 經營體制를 전환하며, 政府機能을 신중히 조정하고, 政府과 企業을 분리하며, 企業이 市場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②國家와 각급 省·市는 일부 기업을 선정하여 현대기업제도의 건립을 실험하고, 기존의 株式制企業 특히 上場企業은 규범화하며, ③産業과 企業組織의 構造調整을 중심으로 하여 일부기업에 대해서는 閉鎖, 停止, 合併, 轉業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破産을 통한 (淘汰) 體制를 건립하고, ④産業構造 조정을 감안하여 企業集團을 발전시켜 나가며, ⑤ 과거의 여러가지 문제로 야기된 기업의 과도한 負債問題를 해결하고, ⑥기업의 잉여노동력을 분산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기능을 분산시키는 것 등이다.

企業改革을 중심으로 하여 養老保險과 失業保險이 위주가 되는 社會保障制度를 마련하고, 保障水準은 현재 中國의 經濟發展水準에 상응하도록 하며, 社會募金과 個人負擔을 結合한다는 원칙하에 國家·企業·個人이 공동 부담하는 多層的인 사회보장체제를 마련할 것이다. 經濟改革과 經濟發展에 필요로 하는 각종 시장을 적극 배양하고, 經濟關聯法의 立法을 강화하며, 경제질서를 개선하고, 기업개혁을 위해서 양호한 社會·經濟環境을 마련할 것이다.

社會主義市場經濟하에서 國有企業을 改革하고, 現代的 企業制度를 건립하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과제이다. 우리는 여러 나라의 유익한 경험을 빌려 개혁에 걸리는 시간을 가능한 단축시켜 나가려고 한다. 그러나 中國社會는 여타 國家들 처

럼 私有化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다. 私有化는 國有企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人民大衆의 지지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中國의 國有企業을 분석하거나 국제경험에 비쳐 보더라도, 國有企業의 효율이 낮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16년간의 개혁을 통하여 中國은 활력있고 효율이 높으며 국제시장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여러 國有企業들을 등장시켰다. 이는 市場經濟를 발전시키는 가운데서도 國有企業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國有企業의 개혁이 성공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다.



토 론

金 益 洙

(對外經濟政策研究院 研究委員)

孫尙淸 主任이 발표한 “中國 經濟體制 改革의 새로운 形勢와 任務”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최근 中國 經濟改革의 진전상황을 소개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논문의 전반적 흐름을 요약해 보면, 중국은 社會主義市場經濟 體制의 效率性을 높이는 財政, 金融, 企業管理體制의 改革을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할 것이며 이는 과거 개혁의 성공적인 성과에 자신감을 가진다는 것의 반영일 수도 있다. 그 改革의 중점은 지금 현재 거시적으로 中國이 당면하는 두가지 문제 즉, i) 21%를 넘는 인플레이와 ii) 國有企業의 구조적 赤字문제라는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財政, 金融, 投資管理體系를 조율하고 미시적 차원에서는 國有企業의 선별적 破産을 허용함으로써 市場經濟體制에 맞는 效率性을 국가로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압박을 가하는 식의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형식적 지시나 간섭에 의해 이같은 改革이 이루어 졌으나 이제는 자율적 판단과 市場의 가격신호체계에 의해서 미시적 효율향상을 기하겠다는데 中國 經濟體制 改革의 전개방향을 든다고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는 평소에 주요 改革에 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의문사항을 몇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 財政改革 -

우선 財政改革에 대해 살펴보면, 금년초 中國은 대대적 分稅制 개혁을 실시하

였다. 分稅制란 국가의 稅收, 즉 財政收入을 中央稅, 地方稅,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나눠갖는 共通稅 세가지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中央稅는 국가의 세무총국이 관리하고 地方稅는 지방세무국이 징수, 관리하고 共通稅는 (특히 부가가치세의 경우) 중앙이 75%, 지방이 25%의 비율로 나눔으로써 중앙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공통세의 목적은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稅收極大化를 위해 무분별한 투자팽창, 대출증대를 함으로써 결국 국가의 세수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인프라 부문, 에너지 부문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조치라고 생각한다.

이 제도에 대한 몇가지 의문사항을 보면, 현재의 分稅制는 과거 80년대의 劃分收支分級包干 즉, 수입과 지출을 구분해서 각 지방정부가 계약, 분급관리하는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과거의 分稅制 하에서도 지방과 중앙의 고정수입이 각기 있었고 또한 중앙과 지방이 나눠갖는 세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3종류의 조세로 그 형태를 바꾸었다는 것은 과거의 稅制와 현행 稅制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의문을 유발한다.

또한 이 分稅制의 목적이 中央政府의 赤字를 완화하기 위한 것에 상당한 암묵적 목적이 있는데, 중국의 여러 신문은 이 목적에 대해 엇갈리는 평가를 하고 있다. 긍정적 평가로는 財政收入이 금년 상반기에는 전년대비 23% 정도가 증가하여 新稅制 도입은 상당히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중앙세는 11.6% 증가한 반면 지방세수는 30.9% 정도 증가하여 이는 결국 지방세수 극대화 경향을 더욱 부추기고 있어 중앙정부의 세수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는 반응이 있다. 이에 대해 中國政府의 잠정적 평가는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 金融改革 -

中國의 金融制度는 과거의 大銀行制度하에서 모든 은행이 여신을 모두 중앙에 올려보내고 대출은 중앙으로부터 내려받는 하나의 중개자 역할만을 함으로써 각자의 손익에 책임을 지지 않았으나 이제는 金融制度의 改革과 더불어 독자적 책임하에서 각자의 損益에 책임을 지며, 경제지표에 의거하여 여수신을 관리함으로써 銀行을 하나의 經濟實體化 또는 企業化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中央銀行인 人民銀行의 힘이 아직도 미약하고 일부 지방은행은 본점의 여신규제지침에도 불구하고 위치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地方政府의 압력·회유에 따라 대출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人民銀行이 中央銀行으로서 어떻게 지방정부에 대해 자생적으로 通貨政策을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된다.

또한 社會主義市場經濟 體制에 맞게끔 이자율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이자율의 기능에 따르겠다고 하지만 현재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22%에 달해 목표로 잡았던 9%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의 명목금리를 인플레이션 상승분만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은 이자율이 싼 자금을 대출받아 주식투자, 기업인수 등의 투기적 행위에 자금을 유용함으로써 국가전체의 통화관리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미시적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알고자 한다.

- 國有企業 問題 -

國有企業 改革의 성패는 곧 中國 經濟體制 改革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개혁이다. 中國 經濟體制 改革의 논점은 財產權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責任과 權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과거에는 하나의 행정기구였으나 하나의 경제실체로서 政·經을 분리시키며 과거의 자연경제적 경제관리를 과학화시키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현재 500억달러에 달하는 國有企業의 누적적자를

이같은 生産關係면에서의 개혁만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生産關係 改革은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위생산성이 중요하며 誘因體系가 얼마나 잘 되어있는지로 알 수 있는데 현재 中國政府는 國有企業을 40개 정도 破産시키겠다고 하지만 이에따른 실업자와 그 부양가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즉 國有企業 改革과 相對價格 構造의 改革이 병행되지 않는한 國有企業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은 中國의 현 상황에서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결론이 나온다. 파생되는 문제로는 失業保險制度를 통해서 실업자를 구제해줘야 하는데 현재 중국의 失業保險制度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第 2 主題

中國의 經濟發展과 인플레이션

發表者：金 仁 雄 教授(中國 國務院 發展研究中心)

討論者：李 根 教授(서울大學校)



中國의 經濟發展과 인플레이션

金 仁 雄

(中國 國務院 發展研究中心 高級研究員)

一. 重視되어야 할 中國의 인플레이션

최근 2년동안, 中國은 經濟成長率과 인플레이션率이 모두 급증하였다. 1993년에는 각각 13.4%와 14.7% 증가하였고, 1994년의 증가율은 12%와 2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1994년도 全社會 小賣物價指數는 대략 20% 상승하여 50년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높은 인플레가 일정기간 持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中國의 經濟發展과 體制改革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中國政府는 인플레이션 抑制를 금년과 내년에 있어서의 重要 경제과제로 삼고 있다.

현재 일부에서는 고도의 경제성장 추세에는 인플레 발생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인플레를 統制하게 되면 반드시 빠른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인식은 高速 經濟成長 유지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우리가 만일 이러한 인식에 의거하여 정책을 결정한다면, 中國의 國民經濟 發展에 否定的인 영향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二. 인플레이와 통화의 초과공급

中國은 최근 물가가 대폭적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우연히 일어난 현상이 아니고, 1990년 이후 통화공급의 증가율이 경제성장율을 초과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통계에 의하면, 1990년부터 1993년 사이에, 中國시장의 現金通貨(M0)증가율이 매년 12.8%, 20.2%, 36.4%, 35.3%에 달했고, M1(通貨)증가율은 각각 20.2%, 23.2%, 35.7%, 21.6%에 달했으며, M2(總通貨)증가율은 각각 28.0%, 26.5%, 31.3%, 23.7%에 달했다. 同期間동안 GNP 증가율은 각각 5.9%, 7.3%, 13.0%, 13.4%(93년은 GDP)에 달했다. 위의 수치를 통해 우리는 다음 두가지 특성을 알 수 있다.

1. 1990년부터 1993년까지 中國의 年 通貨供給量 증가율은 GNP 증가율을 倍以上 초과하였다.

2. 이 4년동안 누적되어온 中國의 인플레이 압력이 폭발하게 되자, 일단의 적체기를 지나 물가상승이 나타났다. 그 특징은 1990년~93년중 전반 2년동안은 流動性이 비교적 적은 M2증가율이 비교적 높았고, 후반 2년동안(92~93년)은 流動性이 비교적 강한 M0와 M1의 증가율이 비교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최근 몇년동안 과도하게 공급된 通貨가 中國 인플레이의 근본 원인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三. 과도한 投資熱氣와 인플레이션

中國에 있어서 통화의 供給超過가 유발된 것은 全社會 固定資產投資의 빠른 증가와 관련이 있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中國의 固定資產投資總額의 실질증가율은 13.0%, 23.7%, 22.0%를 각각 기록하였다. 투자가 대폭적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은행의

신규대출은 급속도로 늘어나 최근 몇년동안 대출증가율은 20% 이상을 유지하였다. 이렇게 총신용규모와 통화공급량은 계속 확대되었다.

계속되는 投資過熱은 먼저 투자항목과 관련된 자본·중간재 가격의 상승을 초래했다. 1991년과 92년 中國의 小賣物價指數의 증가율이 2.9%와 5.4%를 기록할 당시에, 投資項目의 가격상승은 이미 10%와 12.1%에 달했고 1993년에는 26.6%나 증가하였다.

그후, 에너지·建築資材와 工業生産財의 가격이 대폭적으로 상승하여 社會小賣物價 上昇率을 상회하였다. 한 예로서 1993년에 鋼材·木材·시멘트의 출고가격은 각각 전년대비 82.7%, 28.5%, 48.0% 증가하였다.

이렇게 몇년에 걸친 價格上昇은 商品製造原價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는 수요가 왕성한 조건하에서 필연적으로 小賣物價의 上昇이란 부담을 소비자에게 轉嫁하게 되었다. 1993년도 소매물가 상승율의 70%는 원가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1994년도 原價上昇 요인은 총물가상승의 70% 이상을 설명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四. 消費增加와 인플레이션

中國의 인플레이션은 상술한 投資過熱이 가격상승을 부채질하여 원가상승 요인이 된 것 이외에, 기타 요인으로 消費增加가 總需要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영향 역시 비교적 크다. 1994년을 예로 들면, 小賣物價의 지속적이고도 대폭적인 상승은 아래와 같은 원인에 기인하는 바 크다.

1. 금년도(1994) 公務員 賃金의 調整과 改革은 企業 賃金原價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는 바, 금년도 全社會 賃金支出 增加率은 대략 30~40%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2. 財政·稅制와 換率 등의 制度改革은 企業의 原價上昇에 영향을 미쳤고, 이

는 生産品의 價格引上으로 轉嫁되는 부담이 되었다.

3. 금년에 새로이 價格調整과 價格開放 措置가 실행되어, 糧穀과 棉花 등의 收買價格이 높아지고, 原油와 天然가스의 가격이 높게 조정되었으며, 石炭價格이 자유화되어 전반적인 物價水準의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五. 中國經濟發展의 經驗과 教訓

改革·開放 15년 동안의 中國 經濟發展의 실제 상황을 보면 대략 5년에 한번 정도 (1985년, 1988년, 1993년)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났고, 경제적으로 큰 폭의 등락(fluctuation)이 출현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의 경험에서도 나타나듯이, 높은 물가상승은 計劃經濟體制를 市場經濟體制로 전환하는데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또 改革開放의 순리적인 진행에도 이롭지 못하다. 中國의 過去經驗이 주는 교훈은 物價上昇率이 두 자리 숫자에 달했을 때 價格改革의 속도를 줄이거나 그 진행을 중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심지어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원래의 相對價格 구조로 복귀하게 되기도 한다. 또한 市場秩序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간섭과 통제를 강화하게 되고 대출금리의上昇을 초래하고, 이는 金融改革에도 장애가 되어 전체적인 市場經濟體制의 건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六. 중복되는 인플레이션의 危害

세계 여러 국가의 경제발전의 經驗과 경제학 이론에서 이미 증명된 바와 같이, 經濟成長과 인플레이션은 相關關係가 있다. 인플레이션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運行을 하는데 손해가 되고, 시장질서가 혼란해지며, 資源을 효율적으로 配分하는데 방해가 받게 되는 등 경제를 파괴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中國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경제·사회발전에 미치는 危害로부터 교

훈을 얻는 것이 꼭 필요하다.

1. 인플레이션下에서는 國民經濟의 構造가 악화되고,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불리하게 된다. 市場經濟하에서 商品의 相對價格 構造는 資源配分의 주요 신호로 작용한다. 부적합한 경제규모로 인한 비정상적인 상대가격 구조하에서는 경제정책이 올바르게 나올 수 없고, 資源配分의 效率性 역시 떨어지게 되며, 産業 構造는 악화되고, 經濟發展은 더욱 힘들게 된다. 만일 미래에 대한 불안정한 요소가 증가하게 되면 사람들은 危險(risk)을 피하려하고 장기적인 投資는 줄어들게 되며, 안정되고 장기적인 發展의 기틀을 잃게 되어 經濟發展의 속도는 더디게 된다.

2. 外國資金을 이용하는데 영향을 받는다. 악성 인플레이의 條件下에서는 外國人 投資者는 그 투자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外資導入은 줄어들게 된다.

3. 사회가 안정된 발전을 진행하다가 인플레이 시기에 들어가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名目收入이 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지않은 수의 고정수입자에게는 實質 生活水準의 하락을 가져오게 되고, 그외 사람들의 생활 역시 불확실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이 政府에 대한 신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플레이션은 각 부분에서 投機를 조장하게 되며, 所得 不平等을 확대시키며, 또한 정부가 巨視的인 調整政策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변형되는 양상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을 유효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은 經濟·社會 安定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經濟의 長期的인 發展을 유지하는 데에도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을 잘 조정하고 빠른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상호 모순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작용을 하는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에서 나타나듯이, 巨視的인 調整을 통하여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의 고속 발전을 유지하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七. 인플레이션 조절대책에 대한 의견

中國의 경제발전과 인플레이션 조절은 中國의 현실상황을 통해 그 원인을 찾아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1. 수십년 동안 中國은 外延的인 投資擴大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다. 새로운 항목의 투자와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하여 生産增大를 도모하여왔는 바, 이제는 技術發展, 品質의 향상, 效率의 제고를 통하여 성장을 도모하는 內包的 成長方式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후의 경제발전은 내포적 방식의 擴大再生産에 주력하고, 투자의 팽창을 방지하며, 規模의 效率을 높이고, 通貨供給의 과다증가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해야함이 확실시된다.

2. 基礎産業에의 투자를 중시하여야하고, 農業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두어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농업부문 투자가 총투자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 中國은 農業大國이다. 공업 및 기타 산업의 발전속도에 비해 農業의 성장속도는 느리지만 이를 잘 발전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農業과 工業의 發展速度 比率이 1 : 3 보다 더 벌어지면 이에 비례하여 농산품의 공급부족이 초래되는데, 이 또한 全體 物價와 經濟發展에 악영향을 끼친다. 中國은 여러차례의 經濟波動과 物價上昇을 겪은 바 있는데, 이때마다 모두 工業의 발전속도가 너무 빨라서 農産品의 需要增加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農産品의 공급부족이 발생한 것이 큰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中國國民의 소비지출중 절반 이상이 식품구입에 지출되었고, 糧食과 副食의 가격이 오르면 반드시 모든 平均 小賣物價가 올랐다.

3.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은행의 預金·貸出 金利가 物價上昇率보다 낮은 이른바 逆(-)금리 상황을 改革해야할 필요가 있다. 市場經濟를 지향하는 많은 국가들은 은행의 이자율을 인플레이션을 막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이는 효율적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경제가 과열되고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있는 國家는 은행의 이자율을 올리게 된다. 중앙은행의 基準利率이 오르게 되면 일반 상업은행의 이자율도 따라 오르게 되어, 過熱經濟에 통제를 가하게 된다. 陽(+)의 실질이자율 수준을 유지하는 것, 즉 명목이자율이 물가상승률의 폭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은 일국의 경제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만일 逆(-) 金利 현상이 지속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회는 자금의 超過需要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국민의 자발적인 貯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며, 資源의 합리적인 分配에도 해롭게 되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助長하게 되는 것이다.

中國은 앞으로 현재의 은행 평균 이자율을 올림으로써, 차츰 實質利率을 陽(+)으로 만들고, 이 수단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시켜야 될 것이다.



도론

李根

(서울대학교 教授)

中國의 인플레는 지금까지 85년, 88년, 93년 3번에 걸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데 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85년에는 經濟改革 초기단계로 分權化에 따라 각종 권한을 기업과 지방정부에 이양함으로써 나타나는 각 기업의 자금증대, 임금상승, 보너스 확대 등에 따라 인플레가 나타났으며, 88년에는 農村地域과 非國有企業의 성장, 그리고 당시 시작된 價格改革 등에 따라 사회의 전반적인 總需要가 증대되었기 때문에 인플레가 나타났다. 88년의 인플레 요인과 93년의 인플레요인을 대비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資金需要가 증가한 반면 기업의 생산력은 낮아서 각종 供給不足 현상이 소비재와 원자재 모두에 광범위하게 존재함으로써 생겨난 88년의 인플레와는 달리 93년에는 消費財는 非國有企業의 성장으로 공급부족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原資材에 있어서는 공급부족이 여전하여 원자재가 가격상승을 유도하였고, 이 결과 소비재의 가격도 상승됨으로써 인플레가 지속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같은 지속적인 인플레는 인플레 기대심리를 높임으로써 이에대한 피해를 줄이고자하는 심리가 賃金 등에 작용하여 인플레가 고착되는 현상이 생겨났다.

또한 國營企業의 投資過剩 즉 國營企業이 적절한 수익율과 자금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확장위주의 방만한 投資를 추진함으로써 國營企業의 改革과 인플레가 직결되었다. 國營企業이 효율성에 대한 재고를 하지 않는 이상 國營企業의 투자 열기는 식지않을 것이며 이는 인플레의 주요원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플레는 巨視的 現狀이 아니라 構造的 現狀 즉, 國有企業 改革

과 직결됨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中國의 인플레이는 金融部門 改革과도 직결된다. 國有企業의 방만한 투자는 곧 은행들의 방만한 대출 때문이다. 즉 은행은 國有企業의 투자계획에 엄격한 심사를 함으로써 대출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政治的 考慮 등의 관행에 따라 대출해줌으로써 國有企業의 投資需要를 충족시켜 준다. 그러므로 인플레이는 곧 國有企業 개혁과 더불어 金融部門 改革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이자율을 인상시키겠다고 하지만 이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현재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이자율에도 赤字를 면치 못하는 國有企業의 경우 높은 이자율하에서 그 적자분은 더욱 증가될 것이므로 인플레이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인플레이의 요인으로는 中央政府와 地方政府간의 견해차이도 있다. 中央政府가 정한 목표에 지방정부가 부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한다면 중앙정부가 아무리 인플레이 억제정책을 쓰더라도 인플레이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金 교수가 발표해주신 논문에서 中國의 巨視調節政策에 대한 구체적인 매카니즘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 中國은 市場經濟的 巨視政策을 실시하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잘 정착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만약 중앙정부가 인플레이를 억제시키려고 할 때 은행대출을 억제시키는 것과 같은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는지 아니면 이를 위하여 어떠한 경제적 매카니즘이 동원되는지에 대해 알고싶다. 인플레이의 요인은 경제적 규제수단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즉, 金融部門 改革을 예로보면 中央政府는 투자자금을 加工產業에서 基礎產業이나 農業部門으로 이전시키려 유도하고 있으나, 地方銀行에 대한 통제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높은 加工產業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본인은 이같은 정책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유도하려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

다음 문제로는 김 교수가 말씀해주신 내용 중 通貨增加率과 GNP成長率을 대

비해서 GNP성장을에 비해 통화증가율이 배이상으로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본인은 통화증가율과 명목GNP 증가율을 비교해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에는 GNP증가율과 통화증가율간에는 큰 차이가 나지않는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인플레가 진정되고 경제성장율도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 순환구조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부연설명이 요구된다.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장기적으로 中國이 投資위주의 外延的成長에서 效率위주의 內包的成長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지금까지의 투자위주 高成長, 高物價 상승을 지속하여 이에 비례하는 인플레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므로 이같은 환경하에서 安定的 成長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第 3 主題

中國 湖南省과 韓國의 經濟協力 展望

發表者：王 茂 林 書記(中國 湖南省 黨書記)

討論者：千 辰 煥 社長(럭키금성그룹 海外事業推進委員會)



湖南省과 韓國의 經濟協力 展望

王茂林

(湖南省 高級經濟顧問)

湖南省은 中國의 長江中流의 南岸에 위치하고 있으며, 南으로 廣東省과 인접하고 있는 東南 內陸地域이다. 湖南省의 境界가 대부분 洞庭湖의 남쪽을 지나기 때문에 ‘湖南’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으며 최대 하천인 湘江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湘’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省 전체면적은 21.1만 Km², 人口는 6,300만에 달한다.

湖南省은 景치가 아름답고 물자가 풍부한 바 ‘魚米의 고장’, ‘有色金屬의 고장’, ‘非金屬의 고장’, ‘觀光 名勝地’ 등으로 불린다. 湖南省의 벼, 모시, 油茶의 생산량은 中國 首位를 차지하고 있으며 돼지고기, 차엽의 생산량은 中國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地球上에 매장되어 있는 160종류의 鑛物 중에서 124종이 湖南省에서 발견되었으며, 그 중 안티몬과 텅스텐의 매장량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힌다. 또한 비스트무, 螢石, 長石, 重晶石, 海泡石, 獨居石, 雄黃 등은 中國내 首位를 그리고 납, 아연, 바나듐, 하프늄, 수은, 고령토, 石墨, 비소, 芒硝는 中國내 2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명승고적으로는 동쪽의 京廣線(北京-廣州)를 따라 五岳 중의 南岳에 해당하는 衡山, 文化古都인 長沙, 江南名勝 岳陽樓 등이 있다. 서쪽으로는 國家森林公園으로 지정된 張家界, 索溪谷, 天子山, 猛洞河 등이 있으며 이들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이 지역은 國際聯合에서 ‘世界 自然遺産 目錄’에 登載하기도 하였다. 改革·開放 이래 특히 鄧小平 同志가 南方視察에서 중요한 談話를 발표한 이후 湖南省의 경제는 高速成長期에 접어들었다. 湖南省의 國民總生産額은 최근 3년간 계속 12% 정도의 高度成長을 기록하였으며, 금

년도 국민총생산액은 1,529억 元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湖南省 소재의 외국투자기업의 수는 약 3,000개, 實際利用 기준 投資額은 17.5억 달러에 각각 달하고 있으며, 금년도 湖南省의 수출입총액은 2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浦東(上海)과 長江의 開發·開放에 참여하고 있는 湖南省은 經濟發展의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즉 浦東과 長江의 開發·開放이 진전됨에 따라 湖南省의 中國全體에 있어서의 개혁개방의 지위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湖南省은 內陸省의 閉鎖性을 타파하고 직접 대외개방을 하는 省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湖南省은 두개의 광대한 지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長江經濟帶에서 放射(영향)을 받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華南經濟圈에서 放射(영향)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두개의 경제지역으로 부터의 相互進出과 融和를 통하여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다.

현재 湖南省은 적극적으로 浦東과 長江의 開發·開放에 참여하고 있다. 전체적인 形勢는 岳陽을 중심으로 하여 長沙·湘單·株洲·衡陽·常德·益陽에 의지하고 沿湘·資·沅·澧 등 4개 강 유역을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등, 층을 나누어 진행하여 全方位에서 대외개방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몇년동안 湖南省과 韓國間의 경제교류와 무역은 無에서 有를 창조하며 부단한 발전을 이루었다. 1992년 湖南省의 對韓國 무역총액은 2,020만 달러에 달했으며, 1994년에는 1~9월중에 1992년 全年에 비해 153% 증가한 5,117만 달러에 달하는 발전을 이루었다. 湖南省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주요상품은 穀物·食用油 등의 식품, 畜產品, 鑛業製品과 輕工業製品 등이고, 韓國에서 수입하는 주요 상품은 鋼材·컴퓨터 등의 工業完製品이다. 한국의 對湖南省 合作投資는 최근에 시작되었는데, 근래 2년동안의 合資企業 수는 9개인데, 이들의 투자총액은 1.4억 달러에 달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湖南省과 韓國間의 경제무역협력은 초보적인 단계로서, 최근 몇년간의 對韓 輸出額이 湖南省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이고, 한국에서 도입된 外資는 湖南省 全體 外資導入額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쌍방간에는 서로 다른 經濟發展 過程을 거쳤고 自然資源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協作의 잠재력은 대단히 크고 확실한 相互補完性을 具備하고 있다. 최근 1년동안 韓國의 몇개 대기업, 예를 들면 三星·金星·大宇·雙龍·鮮京·大韓貿易 등 20여개에 달하는 대기업들이 湖南省에 와서 考察하였다. 또한 韓國의 黃秉泰 駐中大使께서도 1994년 8월 25일 湖南省을 방문하였다.

湖南省과 韓國 쌍방간의 協作영역은 비교적 廣大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번째는 農業이다. 湖南省은 農業大省으로 農產品이 풍부하여 農副產品의 발전된 加工方面에 있어서 잠재력이 대단히 크다. 예를 들어 湖南省에서 금년도에 생산한 돼지는 4,000만 頭가 넘었다. 육류제품의 발전된 加工과 皮革工業에 있어서 韓國과 湖南省은 協力할 수 있다. 中國에는 거대한 市場이 있고, 또한 제3국으로 수출할 수도 있다.

두번째는 非鐵金屬이다. 湖南省은 中國 非鐵金屬의 本鄉으로서, 銅·알루미늄·납·아연 등 일반적인 金屬에 대해 우세할 뿐 아니라 희귀한 稀散과 稀土金屬工業도 구비되어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문에서 韓國의 비철금속의 生産 및 원자재의 需要와 相互補完性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非鐵金屬製鍊加工方面에서 湖南省과 韓國은 協作생산이 가능하다.

세번째는 하이테크 산업이다. 湖南省의 科學技術產業은 비교적 잘 發達되어 있는데, 電子技術·새로운 材料工學·生命工學 등에서 일정수준의 優位를 지니고 있다. 특히 電子工業 分野에서 韓國과 湖南省은 協力할 수 있는 영역이 대단히 크다. 예를 들어 韓國의 金星社와 湖南省의 曙光電子有限公司는 컬러 TV 브라운관 부문에 대해 協作하여 내년부터 제품생산을 시작할 예정인데, 이는 湖南省과 韓國間의 經濟協作 方面에 있어서의 하나의 좋은 實例이다.

네번째는 重工業이다. 韓國의 鋼鐵·자동차·建築資材 등 重工業 부문에 대한 기술과 경제력에 대하여 湖南省은 대단히 관심이 많다. 湖南省의 자동차공업은 일정한 基盤이 있고, 建築資材工業 역시 일정수준의 실력을 구비하고 있다. 시멘

트(年産 1,700만 톤)와 平板유리(年産 600만 BOX) 생산에 있어서는 일정수준의 比重을 具備하고 있다. 機械電子工業도 비교적 좋은 基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湘潭電機廠과 株洲電力機車廠 등은 모두 한국기업들과의 합작을 환영하고 있다.

다섯번째는 基礎施設로 道路·電力·通信 등의 方面에 커다란 잠재력이 있으므로 한국기업들이 湖南省에서 합작투자하기를 환영한다.

본인은 우리들 모두가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며, 각자 자기가 가진 장점을 발휘한다면 湖南省과 韓國의 經濟貿易關係는 나날이 발전을 거듭할 것이며, 희망찬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토 론

千 辰 煥

(럭키금성그룹 海外事業推進委員會 社長)

中國의 開放政策 이후 연안지방 중심의 經濟特區의 눈부신 발전이 있어왔다. 현재는 內陸地方으로 그 발전을 확대시키려는 정책이 진행중이며, 지금까지의 단기위주의 협력에서 장기적 안목에서의 경제협력을 中國은 추구하고 있다. 中國의 우수한 자원과 우리의 신기술, 경영기법 등의 기술을 복합한다면 21세기를 향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는 東部 뿐 아니라 中西部地域으로 투자개발을 위한 관심을 돌릴 때이다. 湖南省은 농촌중심 지역이지만 현재는 공업시설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성사는 湖南省에 1억 3천만달러를 칼라TV생산에 투자하고 있다. 이 회사가 湖南省에 TV브라운관 공장을 설립한 것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2군데의 유리공장과 풍부한 천연자원 때문이다.

中國의 연안지방을 중심으로 한 개방정책은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는 이같은 성공의 중심을 내륙지방으로 확산시키려하고 있다. 향후 中國經濟의 중심전략은 上海, 江蘇, 浙江 등의 華東地域과 廣東, 福建 등의 華南地域을 기점으로 하는 내륙발전 전략인데 湖南省은 이 2개의 발전축이 교차하는 위치에 있다는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湖南省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지리상의 장점과 더불어 자사의 투자경험에 비추어 본 湖南省의 투자환경을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

湖南省은 대외개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으나 여러분야에서 많은 취약점이 존재하고 있다. 대외투자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 통신과 같은 社會

間接資本의 확충이다. 湖南省은 이러한 측면에서 취약한 부문이 있으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社會間接資本 시설의 투자에 참여한다면 우리로써는 매우 좋은 투자기회가 될 것이다. 물론 기초시설 미비상태에서 투자기업이 진출한다면 원가상승등의 부담이 있겠지만 현지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것도 하나의 투자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中國의 입장에서 볼 때도 생산환경이 잘 조성되어 진다면 우수한 노동력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중국측에서의 이에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湖南省의 적극적 개발정책 시행을 통해 이같은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이 분야에 대해 여러 기업이 공동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湖南省은 長江의 남쪽부분이고 이미 개발된 福建省과 인접해 있으므로 湖南省에서 부터 內陸으로 발전이 확대될 것이므로 그 발전전망은 매우 밝으며 우리의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다시한번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湖南省의 협력방안을 보면, 王 黨書記가 언급했듯이 湖南省이 보유한 풍부한 鑛物資源의 개발사업 분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WTO 체제 출범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이 개방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농산물수입이 필연적이므로 인접한 중국과의 농산물 협력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럭키금성은 TV브라운관의 초기생산을 95년부터 시작할 것이며 또한 정보, 통신 분야에도 열의를 쏟고 있으며 특히 통신망분야는 매우 전망이 밝아 참여준비중에 있다. LG그룹의 한 법인인 국제전선의 경우 중국, 홍콩, 한국 3국이 생산 법인을 공동 설립하여 湖南省에 투자하려고 추진중이다. 湖南省의 총생산량은 106억달러로 중국 총생산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외무역도 21억달러 1.3%의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第 4 主題

亞·太 經濟協力斗 韓中 經濟關係

發表者：史 敏 所長(中國 國務院發展研究中心 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

討論者：吳 勇 錫 教授(慶星大學校)



亞·太 經濟協力과 中韓 經濟關係

史 敏

(國務院 發展研究中心

아시아·아프리카研究所 所長)

亞太地域의 지역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된다. 먼저 큰 개념은 아시아 전체와 환태평양 지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北美自由貿易地區 역시 그 중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APEC은 北美自由貿易地區의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을 포함.) 한편 작은 개념은 서태평양지구 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동부지역, “四小龍(싱가폴, 한국, 홍콩, 대만), 아세안과 인도지나 국가(어떤 경우에는 오세아니아의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등의 국가도 포함)”를 가리키는 것이다. 亞太地域에서 경제가 가장 활발하고 성장이 가장 빠른 지역은 서태평양 연안 지구로 특히 중국과 인접한 東亞地域이다.

亞太地域은 경제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지역경제협력 발전 역시 매우 빠르며, 투자, 무역, 기술이전, 노동력 수출 등 각종 분야에서 쌍방 혹은 多者間의 協力 활동이 심분 고조되어 왔다. 貿易에서 보자면, 1992년 미국의 APEC회원국에 대한 쌍방무역액이 5,340억 달러, 東亞地域에 대한 무역액이 3,480억 달러,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무역액이 2,650 달러로 2,270억 달러라는 유럽에 대한 무역액을 모두 초과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지역의 80년대 지역내 각국(지구)의 域內貿易은 배로 증가하여, 전체 대외무역에서의 비중이 이미 80년대 초의 대략 30%에서 현재 40%이상으로 올라 갔다. (그 중 東亞地域 각국과 지역의 域內貿易은 전체 대외무역에서의 비중이 1980년 33%에서 1992년 41%로 올라 갔다.) 아시아지역내의 相互投資 증가는 더욱 빨라 80년대 4배로 증가됐다. 1985~1991년 아시

아 지역의 外國人直接投資는 연평균 25%라는 고도성장을 기록했고, 外資중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온 자금들도 상당하다.(그 중 東亞地域에서 1986~1992년 기간 중 흡수한 외국인직접투자 중 60%가 東亞地域 자체 내에서 온 것이다. 같은 기간 중국이 흡수한 외국인직접투자 중 東亞地域에서 온 비율은 더 높은 80%를 웃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무역·기술이전과 기타 경제협력에서 무척 중요한 작용을 한다.

亞太地區 經濟協力の 신속한 발전에서 한가지 중요한 원인은 지역내 各國(地區) 經濟간에 相互補完性이 특히 강하다는 점이다. 이 지역은 자금이 있고 기술력이 두텁고 자원이 풍부하고 시장이 거대한 第一 經濟大國 美國과, 자금이 풍부하고 선진기술이 있으나 자원이 결핍한 第二 經濟大國 日本 이외에도, 노동력과 자원이 모두 풍부하고 임금원가가 저렴하고, 자연자원 종류가 다양하고 일부 첨단기술을 갖추고 있으나, 일반생산기술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고 자금이 결핍되어 있는 中國, 자연 자원이 매우 풍부하나 노동력이 부족하고, 자금이 부족하며, 民間技術이 비교적 낙후되어 있는 러시아 東部地域과 자원이 부족하고,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자금이 비교적 충족하며, 기술진전이 비교적 빠른 “四小龍”, 또한 자연자원과 노동력이 비교적 충분하나 자금과 기술이 결핍된 아세안과 인도지나국가들이 있다. 또한 지역이 광활하고 자원이 풍부하며 비교적 선진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있다. 亞太地域은 이와 같은 각각의 生産要素에 있어 우세를 갖추고 있는 국가(지구)들이 과거의 經濟發展과 産業構造 調整에서 형성된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국가간 産業구조를 부단히 전달·이전시켜주는 國際分業의 짜임새를 이루고 있다.

상술한 이러한 서로 다른 生産要素와 産業構造 단계를 형성한 각국(지구)의 경제에 있어서의 相互補完은 지역경제협력 발전에 중요한 물질적 기초를 제공해주며, 지역내 국가(지구)의 냉전 후 정치관계 개선과 지역경제협력 촉진에 필요한 정치적 전제를 창조하였다.

亞太地域 經濟協力の 실제적 진전이 느리지는 않지만, 전지역에서 經濟協力組織을 건립하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뒤쳐진다고 본다. 현재 亞太地域에 경제협력 조직은 대체로 아래의 몇가지 종류로 형성된다.

1. 大地域에서는 두개의 영향력이 비교적 큰 經濟協力組織을 건립하였다.

하나는 1980년에 건립된 현재 20개 회원국과 지역이 官·商·學 세방면의 인사로 구성된 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 즉 PECC이다. 그것은 전체지역의 고위기구 비정부 논단으로 地域經濟協力 추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한다. 다른 하나는 1989년 성립된, 현재 18개 회원국과 지역이 있는 亞太經濟協力組織으로 APEC이다. APEC은 亞太地域경제협력의 정부(장관급) Forum과 협상기구로 몇 년간 중요한 Forum의 역할을 해왔다.

美國 씨애틀에서 열린 제 5차 APEC 장관급 연례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무역과 투자 기초선언」을 통과시켰으며, 상설로 무역·투자위원회를 건립하여 亞太地域 및 世界貿易과 투자활동을 협조하고 촉진시켜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씨애틀에서 처음 거행된 APEC 회원국 지도자 비공식 회의에서는 21C의 앞날과 亞太經濟協力の 우선 영역 및 협력의 수단과 메카니즘 촉진 등 문제에 의견을 교환한 후, 「經濟展望 聲明」을 발표하였다. 얼마전 인도네시아에서 소집된 APEC 제 6차 장관급 연례회의와 지도자 비공식 회의에서는 주로 亞太地域 貿易自由化 문제 실현에 토론을 진행하였고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APEC이 계속 아태지구의 정부고위급 논단에서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그 정부협상 기구의 기능을 앞으로 강화시켜, 亞太地域의 經濟協力推進에 있어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2. 亞太地域에는 이미 몇몇 小地域 經濟協力組織이 있다.

예를 들면, 아세안(ASEAN), 북미자유무역구(NAFTA), 라틴아메리카의 공동 시장(MERCOSUR), 남아지역 협력 연맹(SARRC)과 남태평양 논단(SPF)들 역시 서로 다른 정도에서 본 지역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였다. 東亞地域은 진일보된 협상을 통하여, 근시일 내에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이 처음 제의한 '東亞經濟核心論壇'(EAEC) 조직이 건립되어 東아시아 전지역의 정부고위급 논단이 될 예정이다. EAEC 건립은 이미 아세안 국가의 공동된 찬성과 아울러 中國의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다. 1992년 4월 북경에서 열린 유엔아태경제위원회(ESCAP) 제 48차 회의에서 통과된 亞太地域 經濟協力 강화에 관한 문서에는 금후 건립된 각지역 경제협력 조직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 가장 쟁점은 美國의 반대로 인해, 東亞地域의 일부국가가 가입문제에 있어 태도를 확실히 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 EAEC건립에 대한 미국의 반대는 약간 누그러졌고 東亞地域에 EAEC를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EAEC 건립 후 APEC과 조화하여 東亞와 모든 亞太地域 경제협력추진을 더욱 더 잘해나갈 것이다.

기타 소지역에서도, 예를 들면 東北亞 地域에서도 이미 지역경제 협력조직을 만들자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멀지 않은 장래에 정식으로 그 지역의 경제협력조직이 건립될 것이다. 이미 있는 小地域 經濟協力組織에서는 아세안의 활약이 가장 눈에 띈다. 1992년 아세안국가들은 15년내 아세안자유무역구(AFTA) 건립을 계획했었고, 바로 얼마전에는 自由貿易區 건립기한을 10년으로 단축시키기로 결정하여 2003년전에는 AFTA 건립사업 완성을 결정했다. 본래 아세안 범위 역시 현재의 6개국에서 전체 인도지나국가와 미얀마를 포함해 10개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나 이런 大아세안의 구상에는 앞으로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3. 東아시아 地域에서 일부 “經濟成長 3角”이 활발히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세안내 일찌기 1990년 이미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바탄섬 및 말레이시아 루블주에서 조직한 “황금성장 3각”이 있고, 1993년 7월에는 “아세안 북부 3각(말레이시아 북부, 인도네시아 스마트라와 태국 남부 포함)”이 건립되었고, 금년 3월에는 또 “아세안 동부 3각(필리핀 남부, 인도네시아 동부, 동말레이시아의 부분지역과 부르나이 포함)”이 건립되었다. 그 외에도 유엔개발계획의 지지하에 中國 吉林省 延邊地域, 러시아 極東地域과 北韓의 나진·청진지역으로 조성된 “두만강유역 성장3각”이 점차 형성될 것이고, 中國大陸의 華南地域과 홍콩, 대만에 걸쳐 형성된 “華南經濟成長3角”과 中國의 黃海·渤海地域, 한반도 및 일본 구주지역에 걸쳐 조성할 “黃海成長3角” 등이 있다. 이러한 “成長3角(혹은 “小地域多者間協力”)이라고 부르는데 그 협력대상이 삼자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은 이미 근시일내 亞太地域 경제협력발전에서 가장 활발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亞太地域의 경제협력은 亞太地域이 넓고 그 복잡한 정치·경제상황으로 인해 유럽 및 미주지역의 경제협력과는 확실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1. 느슨성과 開放性

亞太地域은 아시아, 미주와 오세아니아의 많은 國家(地區)를 포함한 광활하고 넓은 지역이다. 이러한 國家(地區)가 사회제도가 다를뿐 아니라, 經濟運行體制도 판이하고, 게다가 경제발전 수준이 현저하게 다르고, 상호간에는 아직도 적지 않게 역사의 잔재인 영토분쟁과 정치 현실과 이데오르기 문제 등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아태 전지역에서 유럽공동체나 北美自由貿易區와 같은 상당히 밀접한 經濟協力體制를 건립하기는 불가능하며, 단지 비교적 느슨한 경제협력과 발전조직(OECD)같은 협력기구는 건립할 수 있다. 현재 있는 아태 전지구의 논단인 아

태경제협력조직(APEC)이 단기내에는 현재의 Forum에서 제도화된 협력기구로 바뀌기는 힘들다. 상당히 장기간 동안 APEC은 여전히 하나의 느슨한 정부간 Forum과 협상기구일 것이다.

동시에 현재 世界經濟의 일원화와 지역블록화 추세가 평행 발전한다는 조건하에서, 많은 사람들은 地域貿易保護主義의 만연이 세계경제와 무역에 소극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또한 각지역 經濟協力組織은 폐쇄적인 무역그룹이 “開放的 地域主義”를 실행해야 한다.

亞太地域은 세계 2/3의 국민총생산과 약 3/4의 인구가 집중되었으며, 전세계무역과 투자 자유화 추진에서 앞으로 충분한 역량과 영향력을 출현하게 될 것이며, 開放性은 아태경제협력의 한가지 중요한 특징이 된다. 그러나, 대외개방은 먼저 亞太地域내에서 상호개방을 실현하고, 貿易과 投資의 自由化를 실현한 기초 위에서 지역의 국가에 대해 평등원칙을 실행해야 된다고 요구되어 진다.

2. 政府主導의 契約型 協力과 市場主導의 機能型 協力 병존

亞太地域에는 관련국가 정부가 협상을 통해 협의를 달성하고 관련된 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실시되는 多者間 經濟協力(예를 들면 北美 自由貿易區와 東北亞의 豆滿江流域開發計劃)이 존재하지만 또한 각국의 불명확한 정부간의 협의로 인하여 주로 市場機能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經濟協力도 나타나고 있다.

눈에 띄는 예가 바로 중국대륙과 대만, 홍콩간의 兩岸 다자간 협력이다. 현재 대륙 화남지구와 대만, 홍콩 사이의 투자 무역왕래가 무척 긴밀하며, 경제적인 상호의존은 이미 어느 누구도 누구를 떠날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러, 世人의 주목을 받는 “華南成長 3각”을 형성하였다. 兩岸 삼자간 관련 당국이 비록 각자의 범위내에서 일련의 무역·투자관련 규정을 제정하였으나, “華南成長3角”의 경제 무역과 협력활동 발전은 기본적으로 시장메카니즘에 따른 機能型 地域經濟協力을 유지하고 있다.

미래의 발전 추이에서 볼 때, 모든 亞太地域의 경제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정부주도의 契約型 協力和 시장주도의 技能型 協력이 병존하는 국면이 될 것이다.

3. 多層性和 漸進性

모든 亞太地域의 經濟協力は 이미 일종의 小區域, 小地域, 大地域, 全地域이라는 다양한 범위의 經濟協력이 상호 조화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아태 전지역에서 東亞地域은 상대적으로 한 부분적 대지역이며, 또한 東北亞地域은 東亞의 일부분이며, 동북아중에서 “環日本海 經濟圈”, “環黃海 經濟圈”은 동북아의 일부분에 속하며, “環日本海 經濟圈”내 “두만강유역 성장 3각”은 또 범위가 더욱 작은 小區域 多者間協力인 것이다.

이런 큰 원 안의 작은 원, 서로 다른 단계의 경제협력 상호촉진은 확실히 아태 경제협력의 큰 특징이다. 經濟協力の 발전과정에서 협력범위는 쌍방에서 다자간으로, 작은 원에서 큰 원으로 되어지며, 협력내용은 관세 상호양보, 공동개발에서 자유무역, 더 나아가 자금, 상품, 노동력과 인재의 자유이동에까지로 經濟共同體 형성과 점차적으로 순서를 진행하고 제고시켜 나가는 이러한 漸進性이 亞太地域내 小地域(예를 들면 아세안)의 협력 진전 중에서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4. 垂直分業과 水平分業의 교차

亞太地域에도 비교적 經濟發展 水準이 근접한 일부 국가들간에는 水平分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제발전 수준이 현저한 국가들간에는 기본적으로 垂直分業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가 현저해서 형성된 相互補完性이 바로 亞太地域

(각 차지역 포함)이 현 단계에서 國際分業과 協力を 조성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분업 협력의 현실적인 필요성과 그 적극적인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垂直分業 위주의 국면이 장기간 존재한다면 평등·호혜·협력의 원칙 실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와 협력 발전에 따라, 先進國은 投資와 技術移轉을 통해 후진국이 기술수준과 산업단계를 높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水平分業을 발전시켜 점차적으로 垂直分業을 대신하여 亞太地域의 미래 國際分業의 기초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이 전환 과정에서 垂直分業과 水平分業 交叉併存은 본 지역 國際分業과 協力에 있어 또 다른 특징으로 나타날 것이다.

5. 亞太地域 經濟協力の 앞날은 매우 밝다.

남은 20세기와 21세기 초, 亞太地域 각국(지구)의 상호투자과 무역은 계속적으로 비교적 높은 성장을 보일 것이며, 전세계 경제에서의 亞太地域 비중은 한층 커지리라고 전망된다. 그러나, 亞太地域 경제협력조직의 발전이 전 지역에서 볼 때 빠르다고는 볼 수 없다. 1994년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APEC 제 6차 장관급 연례회의와 보고르에서 열린 APEC 지도자 비공식회의에서는 이미 APEC 현인그룹(Eminent Persons Group)에서 제시한 亞太地域 무역자유화 방안 목표와 시간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장기적으로 볼 때 亞太地域과 전세계의 무역자유화 실현은 확실히 바람직하며, 관련국가가 이러한 목표 실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亞太 大地域이 이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문제점이 매우 크다.

즉 각국의 政治的·經濟的 조건을 막론하고, 근시일내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가들을 볼 때, 保護主義를 극복하고 진정한 貿易自由化 원칙을 실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APEC 현인그룹 건의는 지역내 先進國家와 開途國이 무역자유화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서로 다른 시

간적 요구를 규정한다는 것으로 매우 합리적이며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적지 않은 아시아 국가들은 美國에 의해 이끌어지는 아태 경제협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APEC이 대국의 경제적·정치적 패권의 도구로 변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APEC이 제도화된 경제그룹이 되는 것을 찬성하고 있지 않으며, 구속력의 의무를 부담하길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APEC장관급 연례회의와 APEC 회원국 정상 비공식회의에서 亞太地域 貿易自由化 실현을 위해 발표한 성명이 비록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성명은 단지 의향을 표시한 것으로, APEC회원에 대해 확실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自由貿易의 정의, 구체적인 요구 및 기타 관련된 사항은 내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APEC 제 8차 장관급 연례회의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본인 개인적으로는 만약 아세안이 2003년 전에 아세안자유무역구(AFTA)사업을 완성할 수 있다면, 이 기초 위에 약간의 실천을 통해 아세안국가가 공동으로 요구할 때 東亞自由貿易區(大AFTA) 확대가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앞으로 성립될 '東亞經濟核心論壇'(EAEC)이 東亞地域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데 적극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본다. 東亞自由貿易地區가 건립된 상황에서 北美自由貿易區(혹은 확대후의 미주자유무역구) 및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자유무역구(확대 후의 남태평양 자유무역구)와 연계하여 亞太自由貿易區를 건립해야 하는지 않은지 문제는 자연히 일정이 제시될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亞太自由貿易區 건립에서의 또 다른 길이 될 것이며, 실행가능 여부는 모색이 필요하다.

근시간에서 볼 때, 亞太地域 발전에서 비교적 신속한 것은 小區域과 小地域 經濟協力組織(예를 들면 "성장 3각")이 될 것이다. 관련된 국가(지구)가 비교적 적고,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협력실현에서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小區域과 小地域의 多者間 協力は 미래의 몇년 동안 활발한 발전을 보여 亞太經濟協力の 주류로 될 것이다.

中國은 亞太地域의 개발도상의 대국으로서 亞太地域 특히 주변국가와 긴밀한 경제교류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亞太地域을 떠날 수 없으며, 亞太地域 역시 중국을 떠날 수 없다. 中國經濟의 신속한 발전은 亞太國家와의 經濟協力에 유리하며, 中國 역시 亞太地域의 번영과 발전에 적극적인 공헌을 해왔다.

中國은 앞으로도 계속 亞太經濟協力 발전에 참여하고 추진할 것이며, 亞太 전 지역의 경제협력을 증시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특히 東亞地域의 경제협력 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일 것이다. 지역이 넓은 中國은 중앙의 통일적 정책의 지도아래, 전국 각 지역이 충분히 적극성을 발휘하여 주변국가(지역)와 小區域, 小地域 協力活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6. 中韓兩國은 亞太地域에 속해 있으며, 東北亞에서의 이웃이기도 하다.

中韓 兩國의 經濟貿易 協力は 양국의 경제발전 촉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亞太經濟, 특히 東北亞地域 經濟發展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中國은 開發途上의 大國으로 인구가 많고, 노동자원이 풍부하며, 어떤 첨단기술과 자연자원의 우세를 갖추고 있는 막 일어나는 巨大市場이다. 韓國은 동아시아 新興工業經濟(NIEs)의 하나로, 공업발전이 신속하고, 응용기술과 일부 자본, 기술집약형 산업(자동차, 조선, 전자 등)에서 우세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자금이 상대적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韓國은 자연자원이 부족하고, 이미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 노동력 원가가 신속히 상승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中韓 양국은 경제적으로 상호보완성이 매우 강하며, 협력강화에 양호한 기초를 제공한다.

韓中수교 이전에도 양국의 貿易은 일정하게 발전되어 왔고, 1992년 8월 24일 韓中 정식수교 이후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발전은 더욱 신속해 졌다.

貿易側面에서 중국세관 통계에 따르면 1991년 中韓 貿易額이 32.4억 달러로 전년대비 67%가 증가했다. 1992년 中韓 貿易額은 50.60억 달러로 전년대비 56%가

증가했다. 그 중 수출이 24.37억 달러로 전년대비 11.8%가 성장했고, 수입이 26.23억 달러로 전년대비 14.6%가 성장했다. 1993년 中韓 貿易額은 82.2억 달러로 그 중 수출이 28.6억 달러, 수입이 53.6억 달러로 中國은 이미 韓國의 제 3대 貿易 相對國으로 되었다. 1994년 상반기에 中韓貿易額은 이미 54.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5%가 성장했으며, 금년도 양국 무역액이 12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韓國에 대한 中國의 수출상품은 주로 농림수산물(1/3 이상), 광산물(15% 정도), 섬유류(1/5 이상)와 화공상품(15% 정도)이었고, 韓國에서 수입하는 상품은 주로 철강 및 금속제품(1/3), 화공제품(1/5 정도), 섬유류(1/5 정도), 기계류 및 자동차(10% 정도)였다. 韓中 무역에서 중국은 여전히 비교적 큰 무역수지 적자를 안고 있으며, 한국에 수출하는 섬유 및 가전제품 중의 상당량이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에서 판매된 상품이다.

中韓 貿易額은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5.5%를 차지하며, 중국의 대외무역에서는 4.2%를 차지하는데, 이는 양국의 상호무역이 아직 매우 많은 발전 여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經濟貿易投資協力에서 볼 때, 1992년도 中國은 이미 943개 항목에서 한국의 중국투자를 비준했으며, 협의된 투자금액은 6.19억 달러로, 실제 사용된 금액은 2.76억 달러였다. 1994년 6월까지 中國이 비준한 韓國企業의 투자항목은 1543개로 투자협의 금액이 12.08억 달러이다. 한국기업의 중국에 대한 실제 투자액누계로 이미 4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여진다.

韓國의 中國에 대한 投資成長은 신속한데, 금년 상반기만 보더라도 중국에 대한 투자가 3.7억 달러(협의액)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1.8%가 성장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중국이 끌어들이는 외자 총액의 0.29%로 각 항목 평균 투자가 84만 달러로 투자 총액과 투자규모에서 볼 때 작은 편이다.

금년 3월 金泳三大統領 訪中時, 중국지도자들과 차관급 산업협력위원회 성립을 상정했고, 비행기, 자동차, 자동전화교환기, 원자력발전, 고화질 TV 등 5개 분

야에서 협력을 다짐했다. 韓國側은 앞으로 중국 통신시스템에 1억 달러의 계산기 라인과 1억 달러를 들여 북경-광주간 광케이블 건설을 할 것이다. 韓國 商工部에서 전망한 韓中 經濟協力 방안에 따르면, 1997년과 2001년에 韓中 무역액은 280억 달러와 560억 달러로 증가되며, 중국 투자도 40억과 100억 달러로 성장시켜, 금후 몇 년내에 중국을 한국 최대의 해외투자 대상으로 삼는다고 한다. 이러한 숫자는 韓中 경제무역협력의 밝은 미래를 충분히 나타내 주는 것이다.

韓中 양국은 경제무역과 과학기술협력 강화를 통하여, 두 나라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충분히 이용하여, 분업협력을 통해 상호보완성을 강화하고 경쟁을 감소시켜, 각자 산업의 비교우위와 총체적 경쟁우위를 발휘하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7. 中韓 兩國의 經濟協力은 雙方貿易交流를 적극적으로 發展시키는 것 외에는 서로 손을 잡고 共同으로 東北亞地域 특히 黃海·渤海를 둘러싼 經濟地域의 經濟協력을 促進해야 한다.

“黃海·渤海經濟區”는 주로 中國, 韓國, 北韓, 日本 4개국으로 小地域 經濟協력에 속하며 “성장 4각”이라고 불리우는 東北亞와 東亞地域 경제협력 앞날에 있어 가장 밝은 소지역이다. 韓中 양국의 정부와 민간 연구기구는 이미 黃海·渤海地域과 모든 東北亞地域의 경제협력에 깊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관련된 국제 회의를 통하여 “環黃海·渤海 經濟圈” 건립에 관한 여러가지 구상을 제시하였다.

黃·渤海 地域은 中國에서 4省 3市를 포함하는데, 즉 遼寧, 河北, 山東, 江蘇 4省과 北京, 天津, 上海 3市(山西, 內蒙古와 기타 인근 省, 自治區로 확대되기도 함)를 말하는 것으로 이곳의 인구는 2.8억, 크고 작은 도시가 140여개로, 풍부한 광산자원과 해양자원(석유, 천연가스와 메탄포함)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인력자원의 개발 정도가 많고, 기초설비가 양호하며, 철도, 도로, 항로와 해양운송

이 모두 편하다. 통신망 역시 지역내 밀집되어 있어 국내외에 대해 강한 연계를 갖고 있다. 上海, 北京, 天津 3대 도시를 포함한 이 지역은 공업기초가 비교적 좋고, 기술 설비가 선진적이며, 부문간 발전도 균형적이어서 곡물과 경제작물의 농업성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中國에서 경제가 발전된 지역에 속하며 또한 비교적 일찌기 對外開放을 시행한 沿海地域으로서 적지않은 外國投資者들이 투자를 하고, 각종 합자산업을 일으키고 있다. 이 지역은 國民平均 生産總額, 國民平均 收入, 個人平均 貿易投資額이 전국 평균수준보다 높은 “黃金沿岸地帶”이다. 그곳은 앞으로 韓國과 東北亞地域의 기타 국가에 광범위한 投資와 商品市場을 제공할 것이며, 자체내의 우수한 生産要素를 東北亞地域에 투입하여, 기타 국가와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을 개발할 것이다. 中國 黃海·渤海 연안지역의 관련 省·市에서는 “環黃海·渤海經濟圈”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미 적지 않은 준비작업을 해 왔다.

中國 외에 韓國 역시 이 지역의 중요한 국가이다. 한국은 “環黃海·渤海經濟圈” 건립을 위해 이미 서해안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韓國의 서해안은 경기도에서 전라남도과 제주도로 이어지며, 경인지역(서울, 인천등지)외에는 거의가 농업지대이다. 이 지역의 경제는 비교적 낙후됐고, 동부지역과 차이가 크다. 한국은 이미 거액을 투자해 서해안 개발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금세기말까지 모두 22조3천억원(300억달러)을 투입하여 연안 73억평방에 始華, 牙山, 群長, 大佛 등 6개 산업기지와 16개 지방 공업지역을 건설할 것이며, 서해안 고속도로망과 호남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일부 항구를 새로 건설하거나 확대하며, 영종도와 군산 국제비행장 및 통신 등 기타 기초설비를 건설한다.

이러한 건설계획이 만약 순조롭게 완성된다면, 韓國 西海岸 地域의 면모가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동서간의 지역경제발전 불균형 상황이 상당히 변화될 수 있으며, 韓國을 더욱더 유리하게 “環黃海·渤海經濟圈”과 모든 東北亞地域의 經濟協力 활동에 참여하도록 만들 것이다.

中韓 양국이 적극적으로 “環黃海·渤海經濟圈”의 준비·건설작업에 참여하고

북한과 일본의 큐우슈 및 에도내해지역이 황해·발해지역 경제협력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環黃海·渤海地域經濟圈”을 빨리 건립하도록 촉진하는 것 외에도 모든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을 활발히 만드는 것이다. 지금 급선무는 中韓 양국의 정부 및 민간 연구기구가 연구협력하여 “環黃海·渤海經濟圈” 수립의 실행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관련국 간의 정부심의를 통해 “環黃海·渤海經濟圈” 건립 구상이 논단과 설계에서 현실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하여 東亞와 모든 亞太地域의 經濟協力에 새로운 범례를 제공해야 한다.

토 론

吳 勇 錫

(慶星大學校 教授)

우리는 지금까지 아·태 지역의 중요성과 문제점등에 관해서는 APEC 등의 여러 지역공동체를 통해서 잘 알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거두절미하고 여기서는 中國과 韓國, 특히 中國을 중심으로하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經濟的 問題 뿐만 아니라 政治的 問題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시아지역에서의 정치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아태지역의 경제문제는 그 전도가 아무리 밝더라도 그것을 풀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史 소장은 먼저 EAEC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EAEC는 태평양에 파고를 일으키고 있고,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가 시애틀 총회에 불참함으로써 미국과 여전히 갈등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中國이 EAEC에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과연 그 支持는 EAEC에 대해 어느정도의 가능성을 두고 나온 것인지에 대해 본인은 매우 궁금하다.

먼저 EAEC의 배경을 보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제기되면서 불리한 입장에 놓인 말레이시아가 특히 농산물 부문에서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등에 대항하고 하나의 공동전선을 펴겠다는 의지에서 설립되었다. EAEC 생성배경은 근본적으로 이슬람교도들의 반미감정에서 나타난 것이므로 내부적으로는 美國과 상당한 갈등관계에 있다. 또한 日本은 G7국가로서 머리는 유럽, 미주쪽에 두고 몸통은 동아시아에 두고 있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미 經濟圈을 형성할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通常産業省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 국내 산업성이 추진하는 것과 같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동남아권에서의 위치

이다. 반면 日本은 실제 위치하고 있는 東北亞 지역에 대해서는 과거의 역사적 과오에 대해 부인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東北亞 전체에 과문을 일으키는 등 오히려 東北亞 지역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이처럼 日本의 동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파고와 美國이 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볼 때 반미감정을 가지는 EAEC는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다고 본다. 그러므로 中國이 EAEC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앞의 연설에서 EAEC를 중심으로 생겨나는 반미갈등을 중국은 어떻게 해결하려는지에 대한 史 소장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연설의 결론부문에서 아태협력강화를 위해 한·중간의 環黃海經濟圈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는데, 環黃海經濟圈을 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해보면 韓國은 동북아시아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東中國海로 보면 홍콩, 대만이 같은 中國圈으로써 중국에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고, 동남아에는 또다른 신흥공업국인 싱가포르가 있어 하나의 기본축을 형성하며, 중국, 홍콩, 대만이 생각하고 있는 大中華經濟圈을 중심으로 볼 때 한국이 여기에 가담하는 것은 중국이 아시아와 동북아시아지역으로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잇점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볼 때 사실 中國은 美國, 日本과 같은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우리는 中國의 거대한 경제력, 국토, 인구측면과 비교해 볼 때 小國으로써 중국-일본-미국으로 이어지는 삼각구도에서 싱가포르, 대만과 같이 하나의 외곽지역 역할 밖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태, 동아시아 지역들간의 다자간 협력 속에서 韓國과 中國간의 協力關係를 제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동남아시아에서 인도지나 3국, 그 중 특히 베트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중국은 南沙群島를 놓고 베트남과 국경분쟁이 심각하며 미국은 이를 이용해 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이에 中國과 美國의 갈등은 심화될 것이며 나아가 아·태협력에 있어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은 아·태지역의 협력을 위하여 南沙群島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아시아지역에 속한 나라로써 매우 관심있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에 파생되어 ‘東海’라는 명칭의 표기에 있어 일본은 ‘日本海’라고 하는데 앞으로 태평양지

역 즉, 環黃海, 環東海圈의 협력구도에 있어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므로 통일된 명칭이 결정되기를 기대한다.



第 5 主題

開放型經濟를 目標로하는 中國의 對外開放政策

發表者：張 小 濟 教授(中國 國務院發展研究中心)

討論者：金 時 中 博士(對外經濟政策研究院)



開放型經濟를 目標로하는 中國의 對外開放政策

張小濟

(國務院發展研究中心 對外經濟研究部 副部長)

中國은 1979년부터 15년간 對外開放을 추진해 왔으며 對外開放은 이미 기본적인 國家政策이 되었다. 中國共產黨 第14期 三中全會(1993년 11월)에서 “국제경쟁과 국제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中國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비교우위를 살려 開放型經濟를 발전시키며 국내경제와 국제경제의 상호보완 관계를 실현하자”는 내용을 발표하여 對外開放을 재삼 강조한 바 있다. 中國은 현재 貿易과 投資의 自由化를 추진하고 있으며, 亞·太地域의 經濟協力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關稅貿易一般協定(GATT) 締約國의 지위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으며, 새로운 世界貿易機構(WTO)의 창설회원이 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궁극적으로는 開放型經濟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1. 對外開放政策에 있어서의 中國의 새로운 선택.

15년간의 改革·開放을 통하여 中國의 對外貿易은 비교적 양호한 발전추세를 維持해왔다. 수출입총액은 1978년의 206.02억 달러에서 1993년 1,957억 달러로 늘어나 연평균 16.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1994년에도 中國의 수출입총액은 계속 증가하여 2,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불변가격 기준으로 15년간 수출입총액의 평균 증가율은 같은 기간동안의 國內總生産額 평균성장율 9.2%보다 7% 포인트 높았다. 貿易依存度는 1978년의 9.9%에서 1993년 39.6%로 증가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輸出商品의 構造가 현

저하게 개선되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工業完製品의 비중이 1978년의 46.5%에서 1993년 81.8%로 높아졌다. 對外貿易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改革·開放 이전의 간단히 잉여물자를 팔고 부족물자를 사오는 수준을 탈피하여 매우 중요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對外貿易의 발전은 經濟成長의 촉진, 産業構造의 조정, 技術進步, 經濟效率의 제고 등 여러가지 면에서 많은 공헌을 하였다.

1979년부터 1993년까지 中國의 대외차관은 협의기준으로 859.5억 달러, 실제이용 기준으로 714억 달러였으며, 외국기업의 直接投資 金額은 실제이용 기준으로 642억 달러에 달했다. 대규모 外資流入으로 工業化 過程에서 나타난 자금부족을 일부 보충할 수 있게 되었으며, 固定資產投資 중에서 外資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外資가 全社會固定資產投資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의 5.4%에서 1993년 17.9%로 높아졌다. 1993년 현재 中國에서 조업중인 外國投資企業의 숫자는 8만여개, 공업생산액은 3,020억 元, 각종 稅金納付額(관세는 제외)은 206억 元, 종사자는 1,000여만 명,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에 각각 이르고 있다. 또한 새로운 技術의 도입, 産業高度化의 촉진, 선진적인 管理技法의 도입, 신규 就業機會의 창출, 國際收支의 균형, 市場經濟化의 촉진 등의 측면에서 外資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中國政府는 넓은 면적에 지역간 경제발전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中國이 처한 상황과 국제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과거 15년간 東部地域에서 西部地域으로 점진적으로 開放을 확대하는 정책을 채택하였으며, 현재 沿海開放地帶, 沿江開放都市, 沿邊開放都市, 內陸開放都市 등의 지역이 개방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 대외개방의 중점지역으로 선정된 沿海 11개 省·市·自治區는 경제발전에서 이미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1993년 이들 지역의 鄉級以上 工業生産額은 2조 2천억 元에 달하고 있으며, 中國 전체 공업생산액 신규증가분의 61%를 이들 지역이 차지했으며 이중 43%는 對外指向型 工業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이들 지역의 수출입총액은 744억 달러로 中國 전체 수출입총액의 81%에 달

했으며, 수출 신규증가분의 70%가 沿海地域에서 달성된 것이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15년간의 개혁개방을 통하여 中國의 國際市場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國內 뿐만 아니라 國外的 市場과 資源을 이용함으로써 中國이 國際分業과 國際經濟協力에 참여하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는 中國의 경제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현재 全世界가 中國의 경제발전 추세를 樂觀적으로 보고 있는 바, 이는 中國의 對外貿易 확대와 효율적인 外資利用 및 技術導入에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과 21세기초의 中國 經濟發展의 장래를 전망해 볼 때 對外貿易과 外資導入에 있어서 여러가지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첫째,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새로운 世界貿易機構의 탄생은 국제무역의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며, 1990년대 후반 나아가서 21세기초까지 세계적으로 經濟와 貿易은 여전히 成長勢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무역자유화의 진전과 동시에 保護貿易主義와 地域블록화 현상이 나타나 무역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 中國의 대외무역은 美國과 日本 및 유럽연합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先進國의 非關稅障壁과 반덤핑조치에 의해 수출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世界銀行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이 미국, 유럽연합 및 일본 세 나라로 수출하는 工業製品 중에서 미국의 경우 62%, 유럽연합의 경우 48%, 일본의 경우 27%가 각종 非關稅障壁 때문에 진입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 170종에 달하는 중국의 수출상품이 선진국의 반덤핑조사를 받았으며 이로써 10억 달러의 수출감소를 가져왔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中國이 시장과 상품을 보다 다양화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둘째, 科學技術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新技術이 광범위한 분야에 응용됨으로써 첨단산업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된 반면 상대적으로 자원집약형 혹은 노동집약형산업은 국제경쟁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1980년대부터 중국의 수출이 비교적 빠른 성장을 보였으나, 수출상품이 주로 노동집약적인 原資材

輸入 加工製品으로 1993년도의 경우 이들 제품이 전체 수출액을 40% 이상을 점하고 있는 형편이다. 외국투자기업도 상당부분 원자재수입 가공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바, 1993년 외국투자기업의 수출액에서 원자재수입 가공제품이 48%를 점하고 있다. 이와같이 市場과 原料供給源이 모두 國外에 있는(이른바 兩頭在外) 노동집약적 원자재수입 加工貿易은 附加價值가 적을 뿐만 아니라 외화가득율이 낮기 때문에, 국내의 자본재산업과 원자재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적으며 중국과 선진국간의 무역마찰을 심화시키게 된다. 中國이 沿海地域開發戰略과 아시아지역의 産業施設 移轉趨勢에 따라 東南 沿海地域에 加工工業 基地를 설치하고 있으나, 이 지역의 산업구조가 여전히 勞動集約型 혹은 資源集約型 산업을 위주로 하고 있어 國際分業 구조상 하부층을 형성하고 있다. 科學技術의 발전이 늦고, 産業構造를 조정하지 못하며, 輸出商品의 품질을 제고하지 않고, 노임에 대한 비교우위가 소멸된다면, 중국은 국제경쟁에서 매우 열등한 위치에 빠질 것이다.

셋째, 1980년대에 中國 沿海地域은 加工工業을 위주로 국제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中西部지역은 경제성장이 늦어 東部地域과 中西部地域간에 경제발전상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수출산업이 동부지역에 집중되는 한편 두 지역간의 所得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沿海地域의 임금 코스트가 올라가면서 기존의 비교우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지역간 經濟發展의 不均衡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經濟成長이 둔화되는 한편 國際競爭能力이 저하될 것이다.

20세기 최후 5년간은 中國이 改革·開放과 現代化를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5년간 中國은 社會主義市場經濟 體制의 건립과 現代化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여 21世紀 초반의 지속적인 經濟·社會 발전을 위한 견실한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貿易自由化와 投資自由化를 계속 추진하고, 對外開放의 領域을 확대하며, 生産要素의 移動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를 통하여 産業構造 및 地域간 격차를 조정하고 國際協力과 國際競爭에 단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수출상품의 品質과 附加價値의 제고를 토대로 점차 시장의 多元化를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中國은 향후 대내적인 상황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준칙을 근거로 대외적인 經濟活動 規範을 마련하고, 세계적 혹은 지역적인 경제 협력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점차 開放型 社會主義市場經濟를 설립해 나갈 것이다.

2. 'GATT 復歸'는 향후 中國의 貿易自由化를 진전시킬 것이다.

市場開放을 확대하고 貿易自由化를 실현하는 것은 中國이 開放型經濟를 건립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中國政府가 GATT 회원국으로 복귀하고 새로 설립되는 世界貿易機構의 창설 회원이 되기 위하여 쏟고 있는 노력은 중국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中國은 GATT에 復歸하는 문제에 대하여 지난 8년간이나 협상을 해왔다. 과거 15년간 시행된 開放政策에서 얻은 경험에 비추어 과도한 保護貿易은 經濟發展과 産業合理化 및 기업효율의 제고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였는 바, 이 점에 있어서는 政府와 企業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이 GATT에 복귀하게 될 경우 소정의 利益은 마땅히 향유하는 한편, 자국의 經濟·貿易發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市場을 開放해야 하는 등 각종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의 지도자들은 누차 표명해 왔다.

中國은 GATT 가입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있다. 얼마전 중국은 GATT 복귀에 대한 협상에서 마지막으로 일괄타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일괄타결방안에서 중국은 關稅上限制에 동의하였으며, 평균관세율을 35%로 인하하고 GATT 복귀후 5년내에 평균관세율을 30%까지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 인하된 관세율 1992년의 관세율과 비교하면 50% 이상 인하된 수치이다. 이 외에도 中國은 GATT 복귀이후 5년내에 輸入制限品目을 1993년초의 1,200여개 항목(관세번호 기준)에서 200개 항목으로 줄이기로

하였다.

농산품에 있어 關稅引下, 輸入 數量制限의 關稅化, 및 最低市場進入 허용 등에 대해 중국은 동의한 바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가 정한 의무조항을 능가하는 수준의 시장개방도 하고 있다.

人民幣의 兌換性에 관해서, 1994년초부터 중국은 單一換率制를 시행하고 있으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할 경우 經常項目에 대해서는 人民幣의 兌換이 가능하다. 이러한 개혁조치를 한층 정비하여 중국은 2000년 이전에 經常項目에 대해서는 人民幣의 자유로운 태환을 허용함으로써 IMF 14條國에서 8條國으로 넘어갈 것이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결과를 기초로, 中國은 外資系 銀行에 (시험지역 내에서)대해 人民幣 營業을 허용하고, 外資系 保險會社의 中國 도시내 支店設置를 확대하며, 통신서비스산업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외국기업이 직접 中國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外國投資企業에 대한 內國民待遇 역시 中國의 市場開放 확대의 중요한 일면이다. 현재 中國內에 있는 外國投資企業 중에는 內國企業 보다 많은 우대조치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內國企業보다 덜한 조치를 받는 경우도 있다. 中國이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內國民待遇를 실시하는 것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取消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국기업과 외국투자기업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中國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내수시장을 개방하고, 각종 서비스요금에 있어서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도 내국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각종 형태의 기업들이 公平한 待遇를 받고 平等하게 競爭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다.

知的財産權 보호는 中國의 法律制度와 開放政策상 중요한 문제이다. 中國은 知的財産權 보호와 관련한 각종 법규를 재정하는 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관련 국제기구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中國政府는 일련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한편 사회주의적인 지적재산권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계

속 노력하며,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한 司法·行政 관리를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지적재산권 保護의 水準을 國際基準에 근접하도록 할 것이다.

상술한 사항은 GATT 복귀 협상중에서 中國政府가 밝힌 바 있으며 中國은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장개방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만약 금년말 이전에 중국의 GATT 복귀 협상이 순조롭게 끝난다면, 中國은 새로운 世界貿易機構의 創設會員이 될 것이다. 이는 中國의 改革·開放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人口 12억, 세계 11위의 交易國인 거대한 시장을 개방하여 세계적인 經濟·貿易의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러나, 몇몇 주요 GATT 會員國이 여전히 中國에 대해 과도한 요구를 하며 중국의 GATT 복귀를 방해하고 있다. 이미 수 차례의 성명을 통하여 밝힌 바와 같이 중국은 과도한 대가를 치루고 GATT에 복귀할 수 없으며, 더우기 GATT 복귀를 위하여 開發途上國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다.

만약 中國이 이번에 GATT에 복귀하지 못한다면 8년간 협상을 통하여 인정한 것과 상술한 일체의 사항은 효력이 소멸된다. 이는 물론 중국이 貿易·投資의 自由化를 그만두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새로운 世界貿易機構가 소수의 會員國이 만족할 만한 '商業的 利益'을 얻지 못했다고 하여 세계적인 交易大國이며 외국기업의 투자가 가장 많은 開發途上國 中國을 배제한다면, 이 기구는 完整性和 公正性を 상실하게 될 것이다.

3. 中國의 外資利用戰略은 우수한 構造와 效率提高를 실행하는 것이 중심이 될 것이다.

1992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中國은 外國人直接投資 誘致에 있어서 고속발전 단계에 있다. 1992년도에 중국이 받아들인 외국인직접투자액은 1991년보다 배

이상 늘어난 110억 달러에 달했다. 또한 1993년에는 1992년 對比 배이상 늘어난 260억 달러를 기록하여, 이 해에는 중국이 개발도상국가들중에서 가장 많은 外資를 받아들인 국가가 되었다. 금년 1~10월중 중국이 받아들인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이미 전년도 총액수준에 근접해있고, 금년도 외국인 직접투자총액은 3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外國人投資 영역은 계속 확장되어, 商業·保險·航空 등 전에는 외국인에게 개방이 되지 않았던 업종에도 외국인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979년부터 1993년까지 협의된 외국인투자 누계 中 工業은 55.8%, 農業은 1.5%, 三次産業은 38.9%를 점하고 있다. 최근 2년동안 外國人投資 地域은 점점 내륙지역까지 늘어나고 있고 기술과 자본이 집약된 대형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으며, 단일 항목의 투자규모 역시 커지고 있으며, 韓國의 大企業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多國籍企業들이 이미 中國에서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外國人投資 항목이 노동집약형 중소항목에 비교적 많이 몰려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80년대 중반이후 국제적으로 勞動集約型 産業이 中國으로 移轉되어 온 것과, 세계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현재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다.

中國이 外資를 이용하는 주요 방침은 계속 대외개방을 확대한다는 데 있다. 즉 거시적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의 資金·資源·技術·管理經驗 등을 量的·質的으로 더욱 擴大利用하여 現代化로의 건설을 가속화하려고 한다. 中國이 外資를 이용하는 전략적 목적은 構造를 好轉시키고 전체적인 효율을 提高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더불어 外資利用을 통하여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고, 외채상환 능력과 國內에서의 綜合能力,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소화해 낼 수 있는 능력 등을 상호 결합하여 발전의 가속화를 유지시키는 데 있다. 外資를 이용하여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는 데에는 아래와 같이 중요한 몇가지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첫째는 外資를 합리적인 規模로 이용하는 것이다. 國民經濟의 빠른 발전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中國은 앞으로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외자를 도입할 것

이며, 특별히 外國人直接投資를 통하여 중국 건설자금의 부족분을 메울 계획이다. 물론 이러한 것이 외자를 무조건 많이만 끌어들이자는 의미는 아니다. 中國의 第8期 全人代에서는 90년대 국민경제의 연평균 증가속도를 8~9%로 審議·決定하였다. 이로서 외자이용 규모의 기본적인 근거가 확정되었다. 동시에 국내 자금을 충분히 이용하고, 장래에는 外資를 고정자산투자와 신용대출규모의 거시적인 관리에 이용하여, 外資利用과 國力이 상호작용을 하는 규모와 발전속도를 유지시켜려 하는 것이다.

둘째는 도입한 外資를 産業에 투입하는 확실한 정책을 제정하는 것으로, 外資를 이용하여 중국내 産業構造와 商品構造의 調整을 완성하는 것이다. 外國人投資를 충분히 이용하여 산업의 기술발전과 국제경쟁력 증가 및 國際分業상의 상충부에 참여를 피하여 기초산업·기초시설·3차산업 등 취약한 분야를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작용하도록 유도하려고 한다. 또한 中國의 산업구조 및 수출상품의 품질 고도화를 추진하여 외자이용이 중국의 경제발전에 제약이 되는 부문을 해결하도록 하려 한다. 農業에의 투자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는 장차 외국기업의 농촌투자를 장려하려 한다.

세번째는 外資의 地域別 投資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沿海地域의 노동력은 그 가격이 상승하여, 노동인력의 비교우위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실하에서는 대대적으로 하이테크 산업과 외향성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外資導入, 특별히 노동집약적 산업에의 투자는 여러 지역으로 투자대상 지역을 넓혀 未發達 地域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中國政府는 이미 90년대와 그 이후 時期에 대해 외국으로부터 次官을 도입하여 내륙 지역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을 이미 명확히 선포한 바 있다.

外資를 이용하는 전략적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中國은 장차 지속적으로 투자환경의 개선에 노력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인프라 建設과 社會서비스施設 建設을 강화하여 투자에 있어서의 하드웨어적 환경을 개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外資利用에 필요한 法律·法規를 지속적으로 完備하여 外國人 投資者에게 충분한

법률적 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國際慣例와 社會主義市場經濟 體制 建立에 필요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外資企業에 대해 內國民待遇를 실행하는 諸般 條件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管理部門은 장차 사무효율과 서비스의 질을 提高하고, 官僚主義를 극복하여 중국에 투자하려는 外資企業에게 좋은 소프트웨어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今後 중국은 外資利用 環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중점을 앞으로는 과거의 우대조치 부여로부터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의 조성으로 전환시켜 나갈 것이다. 外國人投資者에 대해 競爭制度를 도입하여 중대한 항목의 투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찰제도를 실시할 것이다. 국가는 투자액이 비교적 큰 기술집약형 항목과 하이테크 항목에의 투자를 장려하고, 이들 투자에 대해서는 ‘市場과 技術을 교환하는 정책’을 實施하여 국내 시장의 일부를 양도하도록 할 것이다.

中國이 적극적으로 外資誘致를 장려하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農業綜合開發과 農業 新技術 항목: 예를 들면 荒蕪地·野山·干澇地· 등의 개간과 생산성이 낮은 밭의 개조, 농작물의 품질향상과 다수확, 新品種開發·優良樹種 導入·優良家畜 育成·飼料와 蛋白質源의 개발 등과 효율적이고도 안전한 농약신품종, 高濃度 化學비료의 개발 등.

(2) 基礎設備과 基礎工業: 중국이 발전을 필요로 하는 에너지源(석탄·전력·석유), 交通(鐵路·道路·港口·공항), 중요 원자재 공업(鐵鋼·非鐵金屬·化工·建築資材) 등의 항목.

(3) 機械電子, 石油化學工業, 自動車製造와 建築業 등 중국이 향후 빠른 발전을 하는데 중심이 되는 산업.

(4) 中國이 시급히 도입을 해야 하는 先進技術로서, 商品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에너지와 原資材를 절약하거나 기업의 기술경제효율을 提高시키거나 혹은 중국에 공백이 생겼거나 시장수요가 있는 새로운 設備나 새로운 재료 항목.

(5) 國際市場의 需要에 대응하여 商品의 품질을 提高하거나, 商品의 판매를 확대하거나, 수출액을 증가시키는 항목 등이며, 특히 고부가가치 商品으로 수출액

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항목.

(6) 종합적으로 資源을 이용하고 資源을 재생할 수 있는 신기술이나 신설비
항목: 예를 들면 열효율이 낮은 燃料과 이 연료의 촉매작용을 하는 資源을 종합
개발·이용하거나 공업폐기물을 종합이용하는 기술개발항목 등.

中國은 국가차원에서 이상의 투자영역과 항목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차 金融
信用貸出, 稅收, 國內市場開放, 外換 등의 방면에서 필요한 우대조치를 취할 것
이다.

-- 信用貸出資金 支援 : 農村開發·交通·에너지 등 基礎施設과 基礎産業에
투자하려는, 조건이 구비된 항목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을 우선 보장해 준다.

-- 稅制상의 우대정책 : 농촌개발·교통·에너지 등 基礎施設建設에 투자하려
는 外資企業의 투자항목에 대해서는 稅制상의 優待政策을 부여한다. 일례로 港
口 埠頭建設에 종사하는 中外合資經營企業의 경영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批准을 거쳐올 거쳐 “5년간은 면제, 이후 5년간은 半減”하는 稅收상의 우대를 부
여한다.

-- 綜合補償 措置의 實施 : 基礎設備施設 建設은 투자규모가 크고 회수기간이
긴 특징이 있음을 고려하여, 중국정부는 鐵路·道路·橋梁 등에 대한 외자기업
투자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서 外資企業이 이익이 비교적 높은
항목을 경영하도록 관련된 經營範圍를 확대 허가하여, 기초설비시설 항목 투자
에 대해 補償을 한다. 이런 방법으로 기초설비시설 건설항목에 대한 외국직접투
자를 장려한다.

中國은 앞으로 外資企業이 국내에서 이미 개발되었거나 여러차례 도입된 기
술, 생산능력이 이미 시장수요를 충족시키거나 수입된 부품을 단순조립하는 것
(CKD/SKD), 商品의 전부가 國內에서 소비되는 항목(예: 綿紗·複寫機·洗濯
機·冷藏庫·레이디얼 타이어·錄音器·라디오 등) 등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장
려하지 않거나 制限할 것이다. 市場에서의 이익이 크고, 기술도입의 장애가 작아
獨占이 쉽게 형성될 수 있는 항목(예를 들면 서비스·貿易部門)에 대한 外資導

入을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장차 外資企業의 株權制限을 實施할 것이다. 國家安全·國民經濟·社會發展·公共利益·人民의 健康에 障礙가 되거나 環境汚染·自然環境破壞 등의 항목의 투자는 금지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貿易과 投資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國內市場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中國이 세계의 貿易·投資活動에 커다란 기회를 창출할 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동아시아 각국에 地緣과 인문경제적 방면에 있어서 優勢를 점하게 될 것이다. 中韓 兩國은 서로 근접해 있고, 경제와 산업에서 상호보완성이 강하다.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과 국가지도자들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진 이후, 經濟·貿易 협조는 이미 새로운 역사의 단계로 진입하였고, 중국의 진일보하는 개방이 양국의 互惠互利하는 협조에 아름다운 미래를 가져올 것을 믿는다.

토 론

金 時 中

(對外經濟政策研究院 研究委員)

張小濟 선생은 발표논문에서 중국이 開放型經濟를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開放型經濟라 함은 i)市場의 충분한 개방과 ii)국내의 제도, 규범을 국제적 관례에 맞게 개선하고 이를 실행해야 하는 두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中國經濟는 아직도 폐쇄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開放型經濟를 목표로 한다는 주장이 다소 공허하다는 느낌을 준다. 물론 中國이 開放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먼저 市場開放의 정도에 있어 中國이 관세수준을 점차 인하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평균관세율이 35% 이상으로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이다. 앞으로 最高關稅率制를 도입한다고는 하지만 상당 수의 품목이 예외로 되고 있다든지, 한국의 입장에서 특히 관심이 많은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는 100% 이상의 매우 높은 關稅率을 적용한다는 것은 市場開放의 정도가 크게 미흡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며, 또한 외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만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中國의 제도나 관행 측면에서의 非關稅障壁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中國의 많은 제도가 국제규범과 많이 다른 중국식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방단위 또는 실무단위의 제도나 그 실행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여 외국업체의 시장접근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정부가 제도나 법규를 제정해서 실시하려 해도 많은 지방에서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불평을 외국기업이나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中國이 개혁과정에 있기 때문에 二重的 體制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社會主義的 내용과 시장경제적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고 있어 이들의 공존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 문제로는 i)中國에서 經濟主體는 무엇인지 매우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政府와 企業이 분리되지 않은 동시에 정부부문간의 역할분리도 불명확하여, 외국기업의 입장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따르는 협력·협상 상대가 누구인지 인식하기에 매우 어렵다. ii)財產權이 불명확하여 경제적 거래에 따르는 不確實性이 높으며, 이 결과로 높은 去來費用(transactions cost)이 발생한다. iii)금년부터 실시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문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이 매우 자주 바뀌어 一貫性이 부족하다.

한편 한국의 입장에서는 中國이 조속한 시일내에 GATT에 재가입해서 이에 부합하는 제도를 실시하기를 희망하지만 현 단계에서의 中國의 GATT 가입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즉 中國에서는 GATT의 기본원칙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예를들면 GATT 기본원칙 중 '內國民 待遇'(national treatment) 조항이 현실적으로 위배되고 있다. 즉 외국기업에 대한 가격차별, 외환거래에 있어 외국기업과 내국민에 대한 차별 등 외국기업이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이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GATT에의 재가입은 수월해질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속적인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발표된 논문에서는 금년말까지 중국이 GATT에 가입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제안해온 市場開放안들이 무효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협상전략 측면이라면 모르지만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 本人은 GATT에서 말하는 이른바 '후퇴'(backtracking)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지속적 협상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中國이 GATT에 가입하길 바란다.

끝으로 中國에서의 外國人投資와 관련하여 한가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中國의 外國人投資는 매우 성공적이어서 금년에는 300억달러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구조를 볼 때 외국인 투자 중 홍콩, 대만 등 華僑資本의 유치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외국인투자의 편향성은 中國이 원하는 고도기술을 수반

하는 투자가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같은 中國의 外國人投資의 구조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張 교수의 답변을 듣고자 한다. 또한 中國은 기초 인프라시설에 外國人直接投資를 유치하려 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이며, 또한 최근 일부 기초시설의 외국인 투자에 있어서는 수익률에 제한을 둬으로써 성공에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 中國이 인프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어떤 방법을 도입하려고 하며, 또한 그것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었으면 한다.



第 6 主題

中國 國有企業改革과 構造調整의 相互結合

發表者：張文魁 教授(中國 國務院發展研究中心)

討論者：徐錫興 教授(釜山工業大學)



中國 國有企業改革과 構造調整의 相互結合

張文魁

(國務院 發展研究中心 副研究員)

國有企業 改革은 우리나라 經濟體制 改革의 關鍵적 고리이며, 또한 외국 경제계와 학술허계가 깊이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이다. 中國의 國有工業企業이 전체 공업기업 수의 20%, 國有 大中型企業은 전체기업의 4%를 차지하는데 그치는 하지만, 資產額 기준으로는 각각 70%와 60%를 차지하며, 賣出額에서는 각각 62%와 52%를 차지하고 販賣稅에 있어서는 각각 73%와 65%를 차지하는 점 등을 볼 때 가히 國民經濟의 支柱라고 할 수 있다. 國有企業 改革의 不深化, 活力의 침체가 지속된다면 中國 經濟成長과 市場規模 확대에 있어 지속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해외 경제기술 協力에 있어 건실한 기초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매우 많은 외국의 전문가들은 中國 國有企業의 곤란을 制度問題, 즉 다시말해서 주로 財產權問題로 귀결짓고 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中國 國有企業 財產權의 不明確性”이라는 관점에 동의하고 있고, 경영메카니즘을 변화시키려고 결심하고 있다. 금세기내 社會主義市場經濟 體制와 상호 적응할 수 있는 財產權의 명확화, 權利·責任의 명확화, 政府와 企業機能의 분리 등을 확립하고, 現代企業의 과학적 관리제도의 틀을 형성하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측면을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형성되온 構造的인 문제가 매우 현실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企業의 현 상황과 연계되어 심각하게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또한 거시적인 경제운용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를 주의해야 할 것이다.

工業部門을 대상으로 하면,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조업을 단축하고 있는 기업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기술난이도가 낮고 기술, 부품유입이

쉬운 업종으로, 생산능력이 심각하게 남아돌고, 경쟁이 과도한 종류이다. 예를 들어 담배, 주류, 방직, 일반 가전제품 등의 업종이다. 둘째는 기술난이도가 높고 기술유입이 어려운 업종으로서 設備老化·技術의 落後로 상품에 경쟁력이 없고 국제시장의 경쟁압력을 심하게 받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대형발전 설비, 정밀화공, 마이크로전자기술 등의 업종을 들 수 있다.

構造의 難題 역시 財産權 측면에서 뿌리깊은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 資本市場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財産權 측면에서만 손을 댄다면, 단기내에 企業의 면모를 변화시키기 힘들 것이며, 반드시 企業改革과 構造調整을 결합시키는 것을 고려해야지만 비로서 목적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내년도 企業改革의 한가지 중요한 내용은 現代企業制度의 실험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현대기업체도의 주요형식은 會社制度(Corporation)를 가리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회사제도는 현대적인 사회화된 대량생산과 市場經濟의 객관적인 요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4年 7月부터 會社法(公司法)을 시행하였고, 國務院은 <會社法>에 의거하여 有限責任會社와 株式會社의 형식으로 100개 시범기업을 전환할 것이며, 특히 有限責任會社 형식을 위주로 할 것이다. 또한 상장된 주식회사의 수를 엄격히 통제할 것이다. 3개의 전국적 업종의 總公司에 대해 持株會社의 규범으로 개조해나가도록 할 것이며, 계속해서 55개 企業集團 육성실험을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에 있어서 企業의 資產은 기본적으로 모두 全人民所有이다. 그러나 이전에는 어떤 구체적인 기구도 國有資產 소유자 혹은 대리자의 기능을 명확히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금의 시도에서는 재산·자금의 정확한 구분, 재산권의 정확한 지정 및 확실한 자산 평가의 기초 위에 國有資產의 價値 보호와 증가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담당자를 있게 할 것이다. 즉 국가의 권한을 부여 받은 投資機構와 國有資產 財産權 대행기구를 명확히하여, <國有企業財産 臨時管理條例>가 확실히 실현되도록 할 것이다. 동시에, 公有制 견지와 國有資產

유실을 막는다는 전제하에서 株權의 多元化를 고무할 것이다. 企業의 法人財產權을 확립하여, 기업 스스로가 진정으로 그 법인 재산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民事責任과 經營危險을 담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실험기업에 대하여 자본금제도의 건립이 필요하다. 즉 이미 형성된 기업자산의 자금에 대해서는 그 원천을 확실히 구분하여, 資本金을 확정하되, 정책적으로 허가된 범위내에서 될수 있는 대로 자본금을 증가하도록 기업을 고무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英여의 公的蓄積金을 인출하기전에, 세금후 이윤의 일정비율을 기업의 자기자금 보충에 사용하도록 하며, 국가 역시 기업이 실제로 납부한 소득세의 15%를 기업에 되돌려 주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企業이 장기적으로 형성해온 심각한 債務를 경감시켜주고, 기업의 채무에 대해 재정비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개혁이후 국가의 ‘撥改貸’(국가의 예산을 통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은행대출을 통한 것으로 전환하는 것) 資金으로 형성된 資產을 면밀히 조사하여 이후 기업의 일부 債務를 國家資本金으로 전환시키고(debt-equity swap), 오래된 묶은 負債 및 貸損에 대해서는 대차를 상쇄하거나, 혹은 자본금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公的準備金과 代損準備金 등으로 나누어 일단락시킨다. 그 후에는 1993년 시행된 <企業財務通則>과 <企業會計準則> 및 <회사법>에서 요구하는 바에 입각하여 엄격히 재무관리를 진행하고 기업의 豫算制約을 강화하여 국제관례에 한층 다가간다. 기업의 법인 관리구조에 대해서는 “老三會”와 “新三會”의 관계를 신중히 잘 처리하고, 회사장정이 규정한 권한과 순서에 입각하여 각종 권리를 행사한다.

企業改革과 構造調整을 잘 결합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기업 破産制度和 社會保障制度를 추진하려고 한다. 1986년 우리나라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破産法>(試案)을 통과시켰으며, 瀋陽, 武漢 등지에서도 일부 破産制를 시도하였으나, 그 당시 조건의 제한으로 인해 실제 효과가 미약했다. 즉 企業 資本金 制度가 정립되지 못했으며, 자산부채 관리가 제도화되지 않았고, 사회보장 등 부대조건 역시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破産制의 실질적인 실시에 진전이 없었다. 현재 우

리는 완전한 社會保障制度 건립과 노동력 이동제도와 직원 재취업제도 건립을 가속화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1993년 기업에 전면적으로 추진한 새로운 재무통칙과 회계준칙에 있어서 각 측면의 조건이 모두 성숙되고 있다.

이에 따라, 國務院은 18개 도시에서 각각 몇 개 기업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破産法 실행을 결정하였으며, 은행 역시 상당량의 대손 준비금을 이용하여 기업의 채무에 대해 정리작업을 진행했다. 파산기업의 선택은 주로 기술낙후, 오래된 설비, 도태당한 상품, 장기적으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즉 희망이 없는 기업들이 기준이 되었다. 파산 메카니즘의 적용으로 産業構造 調整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이번에 조직적으로 실시된 방직업종 기업의 파산 경험을 신중히 종합하며, 앞으로 점차적으로 기타 분야와 낙후된 산업에도 폭 넓게 응용할 것이다.

中國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破産企業의 종업원과 채권인의 이익 관계를 처리할 때는, 앞으로 각측의 요구를 신중히 고려하고, 더 많은 협상을 통한다는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며, 기업의 파산정리 재산과 토지 사용권 처리 수입을 먼저 破産으로 실직한 직원들에게 쓰이도록 하여 그들의 생활보장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파산으로 야기된 충격과 사회동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채권인의 이익이 계속 손해를 보지 못하게 방지하기 위한 것도 된다. 앞으로 國有企業에 시험적으로 건립될 파산 경보시스템을 통하여 파산 위기에 놓여진 기업에 적신호를 알려주게 될 것이다.

改革의 실천과정에서 우리는 社會保障制度가 우리나라 企業改革과 構造調整에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내년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이 방면에 중요한 행보를 내디딜 것이며, 돌파구를 찾을 것이다. 각 방면 기업 직원들이 일률적으로 모두 養老保險과 失業保險에 가입하도록 하고, 통합조절기금을 건립하여 사회적 통합기금과 개인구좌가 상호 결합하도록 실행하여, 사회적 강제성도 있고 개인의 융통성도 있도록 보장한다. 앞으로 3년여 기간의 준비를 통하여 기업에서 퇴직한 사람들 관리사업의 社會化를 실현하여, 퇴직금을 보험회사나 은행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그 외에도 일부 오래된 기업은 퇴직인원이 많으

므로, 부담이 무척 크기 때문에 養老基金의 조성재원 문제를 신중히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면, 國有資產에서 양로기금의 출자금을 조금 떼낼 수 없을까? 하는 것들은 모두 깊이 모색되어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國有大中型企業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계획을 진행해 나가면서, 改制, 改組, 改造의 유기적 결합을 강조했다. '改制'는 바로 경영메카니즘의 전환으로서 現代企業制度의 건립을 말한다. '改組'는 企業組織의 構造調整으로서 대형 企業集團으로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改造'는 기술개조 투입강화로 기술진보와 구조개선 촉진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계속해서 <全民所有制工業企業 經營메카니즘 轉換條例>를 착실히 관철시켜나갈 것이다. 유관부문의 조사에 의하면 <條例> 중에 규정한 14항의 경영 자주권의 실시는 1993년에 비해 1994년에 눈에 띄게 제고됐으며, 생산경영 결정권, 물자 구매권, 내부기구 설치권의 실현율은 90% 이상이었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연합·합병권, 자산처리권의 실현율은 각각 39.7%와 46.6%로 명확히 낮은 수준에 있는데, 이는 기업 재산권의 流動 및 資產存量的 조정이 아직 마땅히 있어야 할 진전을 보지 못함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측면적으로 改制와 改組의 相互結合을 고려해야하는 절박성과 필요성을 반영해 주고 있다.

또한 이 조사에서는 86%의 國有企業 책임자가 여전히 行政 主管部門에서 임명된 사람들임이 나타났다. 이는 우리가 경영메카니즘 전환에 있어서의 진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즉 政府와 企業 기능의 분리작업은 구체적으로 兩權分離 상황에서의 기업가의 임용·해임의 권한 방식·순서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기업인사 통제로 인하여 기업의 정부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기가 힘들 것이며, 또한 기업가의 행동목표가 변화하기 힘들 것이다. 企業改組에 있어 예전에는 閉鎖·停止·合併·轉業을 시도했으나, 항상 산업의 중복건설, 산발적 분포, 규모의 경제 부족 문제, 공업기술 진보의 완만성, 첨단기술 산업의 낙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우리는 破産·合併 등의 방식을 통해, 남아있는 國有資產을 과잉생산능력, 기

술낙후, 산업과 기업으로부터 기술함량이 높고, 기술발전 잠재력이 큰 산업과 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게 촉진할 것이다. 企業集團의 발전에 힘을 써, 55개 企業集團 육성실험을 계속 잘 해 나갈 것이다. 권한을 부여받고 조건을 구비한 기업그룹의 핵심회사를 國有資產 經營機構로 만들어, 핵심회사가 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기업의 株式統制와 株式所有를 하도록 하여 財產權上의 유대관계를 강화한다. 企業集團의 투자기능과 자산처리 기능을 강화하여, 그룹내 구조조정을 실행한다. 改造를 改制와 改組와 결합하는데 있어서는 이전의 투자분산화에서 탈피하여 資金을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부분에 더욱 더 많이 집중시켜 경영메카니즘 전환에서 성공적인 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서 본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外資를 이용하여 國有企業의 技術改造를 진행하려고 하는 정책은 변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과, 우리가 일컫는 “合資接木”이라는 이런 종류의 형식은 각지의 환영을 받고 있으며, 또한 적지 않은 해외투자자들이 기쁘게 받아 들이고 있으며,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만 우리는 전략산업에 대한 침투, 업종의 독점과 國有資產의 遺失만을 방지할 것이라는 것이다.

도 론

徐 錫 興

(釜山工業大學 教授)

이 논문은 中國當局이 國有企業 改革의 새로운 방안으로 1994년부터 적극 추진하기 시작한 '現代的 企業制度(특히 會社制度) 건립'의 주요 내용과 논점을 체계적으로 소개한 것이며 특히 단순한 企業制度 改革만이 아니라 企業改革과 構造調整의 문제를 함께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려 한 데서 이 논문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을 통해 필자는 中國 國有企業 改革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필자는 장교수가 논문에서 제시된 내용과 견해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함께 고려해야 할 몇가지 관련문제들에 대해 언급하려 한다.

1. 政府 職能의 轉換과 政府機構 改革의 문제

中國 당국은 會社制度를 통해 국가의 最終所有權과는 구분되는 기업의 法人財產權을 확립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려는 목적은 國有企業을 정부의 간섭과 보호로부터 확실히 독립시켜 기업경영 메카니즘의 효과적인 전환을 달성하고 經濟效率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政府와 企業사이의 기존의 이익관계의 조정이라는 커다란 변혁을 내포하고 있다. 즉 회사제도의 확립을 통해 政府와 企業의 직접적 관계를 끊는 것은 지금까지 기업의 경영활동에 간여함으로써 기업으로부터 필요경비의 상당부분을 조달받고 있던 정부내 기업관리 부서의 이익, 혹은 金錢과 權力의 交換을 통해 사적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던 정

부관리의 이익과는 정면에서 배치되는 것이다, 금년 초 河南省의 100개 대중형 국유기업에 관한 조사에서는 ‘상부로부터의 규정외 할당금 징수 거부권’이 〈國有企業經營메카니즘轉換條例〉(1992. 7.)가 규정한 기업의 14개 자주권 조항 중 가장 정착되고 있지 않은 것중 하나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기업이 상부 관리부서에 필요경비의 상당부분을 상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政府와 國有企業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이 會社制度는 그 실시과정에서 정부 관련부서와 간부들의 적극적인 방해와 저항을 유발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하여 결국 제도개혁 자체가 왜곡되거나 혹은 형식적으로는 제도가 실시되더라도 그 내용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금년 초 370개 株式制 國有企業에 대한 조사에서는 40% 기업의 이사장이, 33.4% 기업의 총경리가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에서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급 主管部門에 의해 임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張卓元 中國 社會科學院 工業經濟研究所長은 정부 관리부문의 영도간부를 기업의 고문이사로 초빙해 높은 보수를 지급하고 그 댓가로 기업의 경영자주권을 보장받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임시방편일 뿐 문제의 근본해결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現代的 企業制度’(會社制度)의 확립이라는 이 改革이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관리 부서의 대폭적인 축소를 포함하여 政府 職能의 확실한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企業改革의 문제뿐만 아니라 政治·行政制度의 改革을 포함한 사회전반의 대대적인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대단히 어렵고 복잡하며 비교적 장기간을 요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中國國務院은 내년(1995) 연말까지 산하부서의 공무원 수를 20%(약 200만명 정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실시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2. 企業의 損失에 대한 責任과 資產價値 증식을 위한 誘因의 문제

지금까지 放權讓利, 經營請負責任制 등 1980년대에 실시된 제반 國有企業 改革措置가 실패한 가장 큰 요인은 단지 企業의 經營自主權 측면만 강조하고 企業의 진정한 이익과 손실에 대한 자기책임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특히 企業이 이익은 향유했지만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경영 적자를 국가의 재정보조에 의존하였다.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와 會社制度를 통해 企業의 法人財產權을 설립한다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로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중국 당국은 企業破産法을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破産企業은 전체기업중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지금처럼 많은 기업들(전체의 3분의 2 정도)이 곤경에 처했을 때는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기업보조와 부양책을 다시 제시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企業이 破産에 이르기 전이라도 경영상태가 부실한 企業이 있으면 그 企業의 경영주 및 주요 관리간부들이 엄격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黑字企業이라도 企業資產의 최대한 빠른 增殖을 위한 유인 혹은 강제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결국 張 教授도 논문에서 企業경영자 초빙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企業경영의 성패는 상당부분 企業經營을 책임지고 있는 經營者의 능력과 자질 및 태도에 좌우된다. 이와 관련해 현재 중국에서는 유능하고 창조적인 경영관리 능력을 가진 전문경영인 집단의 적극적인 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있다. 우선은 유능한 鄉鎮企業 경영자나 私營企業主를 초빙해 일부 國有企業의 경영을 맡겨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國有企業 과잉인원의 해소문제

따라서 企業의 합리적인 경영환경과 공정한 競爭與件 조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몇가지 문제들이 있다. 즉, i) 왜곡된 相對價格 구조로 인해 경영성과에 관계 없이 적자상태에 놓여있는 일부 기초산업 기업의 문제, ii) 1983년 '撥改貸' 조치 이후 역사적으로 형성된 엄청난 長期債務의 문제, iii) 학교, 유치원, 병원을 운영하거나 퇴직직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등 기업의 과중한 社會的 負擔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가장 해결근란한 문제는 역시 國有企業의 과잉인원의 해소 문제라고 생각된다. 현재 中國 國有企業은 전체 종업원의 약 4분의 1이 과잉인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國有企業의 經濟效率 향상은 요원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인해 기업 내에서 관리간부 및 종업원들 사이에도 경쟁관계를 확립하여 불필요한 인원을 적극적으로 방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社會安定의 문제 때문에 이들을 하루아침에 방출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은 장기적인 과정이 될 수 밖에 없다.

방출된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생활보조 문제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再就業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都市地域의 非國有企業 (個體, 私營企業) 등을 육성하고 第3次産業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문제점과 장애 요인의 예측 및 대처방안 연구의 필요성

1987년 經營請負責任制 도입시에 많은 정부관리와 학자들은 이 제도만 효과적으로 정착되면 國有企業의 경제효율 향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예상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中國에서는 會社制度의 도입을 통해 企業의 法人財產權을 확립함으로써 政府와 企業의 分離 및 企業의 損益 自己責任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國

有企業의 經濟效率 향상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위에서 몇가지 지적했듯이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문제점들과 장애요인, 부작용들이 도처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中國의 關係當局과 學者들은 이 제도의 장점과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려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나타날 문제점과 장애요인들을 보다 정밀하게 예측하고 이것들에 대한 대응방안의 연구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미나 日程

1994년 12월 20일

- 09:00-09:30 參席者 登錄
- 09:30-09:45 開會辭 柳 莊 熙 院長 (對外經濟政策研究院)
 祝 辭 張 庭 延 大使 (駐韓 中國大使)
- 09:45-10:00 휴 식 (Coffee Break)
- 10:00-12:00 第 1 會議
 司 會 : 姜 興 求 所長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地域情報센터)
 第 1 主題 : 中國 經濟體制改革의 새로운 段階
 發 表 者 : 孫 尚 清 主任 (中國 國務院 發展研究中心)
 討 論 者 : 金 益 洙 博士 (對外經濟政策研究院)
 第 2 主題 : 中國의 經濟發展과 인플레이션
 發 表 者 : 金 仁 雄 教授 (中國 國務院 發展研究中心)
 討 論 者 : 李 根 教授 (서울大學校)
- 12:00-13:30 오 찬

13:30-15:30

第 2 會議

司 會：金 泰 弘 教授（東國大學校）

第 1 主題：中國 湖南省과 韓國의 經濟協力

發 表 者：王 茂 林 顧問（中國 湖南省 政府 高級經濟顧問）

討 論 者：千 辰 煥 社長（럭키금성그룹 海外事業推進委員會）

第 2 主題：亞·太 經濟協力的 推進과 韓中經濟協力的 役割

發 表 者：史 敏 所長（中國 國務院發展研究中心 亞·阿
州研究所）

討 論 者：吳 勇 錫 教授（慶星大學校）

15:30-15:45

휴 식 (Coffee Break)

15:45-17:45

第 3 會議

司 會：朴 泰 鎬 副院長（對外經濟政策研究院）

第 1 主題：中國 對外開放의 新趨勢와 WTO 加入의 基本原則

發 表 者：張 小 濟 教授（中國 國務院發展研究中心）

討 論 者：金 時 中 博士（對外經濟政策研究院）

第 2 主題：中國 國有企業改革의 現狀과 方向

發 表 者：張 文 魁 教授（中國 國務院發展研究中心）

討 論 者：徐 錫 興 教授（釜山工業大學校）

17:45

폐 회

KIEP 發刊資料 案內

■ 政策研究

90-01	GATT 11條國 移行에 따른 政策課題와 對應方案 ('90.03)	金學洙
90-02	EC 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의 變化 ('90.03)	閔充基
90-03	換率制度和 外換危險管理 ('90.05)	金宗萬
90-04	우루과이라운드 知的的所有權 協商課題와 우리의 對應方案('90.05)	孫讚鉉
90-05	韓國經濟의 自由化 現況과 OECD 加入戰略 ('90.06)	金泰俊
90-06	ASEAN 主要國의 貿易·產業政策과 投資環境變化 ('90.09)	柳在元
90-07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中長期 經濟協力 方案 ('90.10)	金學洙
90-08	美國通商政策의 中長期方向 ('90.10)	金南斗
90-09	多者間서비스 協商과 우리나라 建設產業의 國際化 ('90.10)	張義泰
90-10	日本企業의 海外直接投資와 國際化戰略 ('90.12)	徐相祿
91-01	美日經濟摩擦과 우리의 政策課題 ('91.01)	姜興求
91-02	主要換率變動의 特性和 政策示唆點 ('91.03)	金宗萬
91-03	EC 貿易構造의 變化 ('91.04)	金廷洙
91-04	美國金融市場의 構造와 規制制度 ('91.03)	李長榮
91-05	中國 經濟特區戰略의 評價와 韓國企業의 對應 ('91.04)	吳勇錫
91-06	蘇聯의 對外貿易 및 金融制度의 改革 ('91.04)	朴濟勳
91-07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와 韓國의 進出展望 ('91.04)	金時中
91-08	우리나라 서비스交易의 構造와 推移 ('91.04)	李相學
91-09	韓國·臺灣·日本의 換率變動과 輸出競爭 關係分析 ('91.05)	曹琮和
91-10	EC의 直接投資 環境變化와 對應方案 ('91.05)	閔充基
91-11	韓國의 對外經濟協力에 관한 政策課題와 方向 ('91.07)	金學洙
91-12	우리나라 세이프가드制度의 改善과 活用方案 ('91.08)	蔡 旭
91-13	우리나라 서비스產業의 生産性變化和 生産性的 國際比較('91.08)	俞鎮守
91-14	舊東獨의 價格體系와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 ('91.08)	裴眞永
91-15	우루과이라운드 金融서비스協商과 證券產業의 競爭力 제고방안 ('91.08)	金泰俊
91-16	폴란드 企業制度 改革과 直接投資與件 ('91.09)	洪裕洙
91-17	韓·美間 直接投資의 구조와 投資環境의 變化 ('91.09)	金南斗
91-18	한국·臺灣·日本의 產業政策과 產業構造調整 ('91.09)	柳在元
91-19	우리나라 株式市場 開放의 效果分析 ('91.10)	金宗萬

91-20	東北亞 經濟協力の 與件과 展望 ('91.12)	共 同
92-01	東北亞 地域 貿易構造와 域內 輸出競爭力 比較 ('92.01)	鄭永祿
92-02	貿易관련 政策 및 制度의 現狀과 改善方向 ('92.02)	共 同
92-03	統獨 1年の 경제적 評價와 展望 ('92.03)	裴眞永
92-0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1] 日本의 貿易障壁 ('92.03)	俞鎮守
92-05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1] 保險産業의 國際化戰略 ('92.03)	蔡 旭
92-06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2] 原產地規程 ('92.03)	韓弘烈
92-0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3] 日本의 輸入品流通과 流通障壁 ('92.03)	趙炳澤 李永俊
92-08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2] 會計서비스産業 國際化 推進方案 ('92.04)	金宗萬
92-09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3]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國際化 戰略 ('92.06)	張義泰
92-10	러시아에서의 사유화 進展과 外國人 投資 與件 ('92.06)	朴濟勳
92-11	先進國의 對中 經濟交流 分析 ('92.06)	鄭永祿
92-12	中國의 企業集團 育成現況과 展望 ('92.06)	金益洙
92-1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4] 標準 및 檢査制度 ('92.07)	成克濟
92-1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5] EC의 貿易障壁 ('92.07)	閔充基
92-15	汎유럽經濟圈 形成의 展望과 影響 ('92.07)	金博洙
92-16	OECD 經常貿易外去來 및 資本移動 自由化規約과 韓國의 自由化 現況 ('92.07)	金泰俊
92-1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6] 金融서비스 關聯 障壁 ('92.07)	李長榮
92-18	유럽金融統合과 EC金融市場 進出方案 ('92.07)	李在雄
92-19	東歐 經濟改革의 類型과 成果 ('92.07)	洪裕洙
92-20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4] 流通産業의 開放效果와 對應戰略 ('92.07)	申世敦
92-21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5] 廣告産業의 國際競爭力 提高方案 ('92.07)	李相學
92-22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7] 政府調達 關聯 障壁 ('92.08)	崔仁範
92-2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8] 美國의 貿易障壁 ('92.08)	金南斗

92-24	輸入先多邊化制度의 經濟的 效果 ('92.09)	共 同
92-25	東北亞經濟協力圈 形成을 위한 線形自由貿易地帶 構想과 그 期待效果 ('92.09)	孫炳海
92-26	UR 총점검 ('92.10)	共 同
92-27	換率, 金利 및 貨金變動이 우리나라 輸出에 미치는 영향 ('92.10)	金宗萬
92-28	國內先物去來所 設立·運營에 관한 研究('92.10)	共 同
92-29	日本의 産業 및 貿易構造의 變化와 展望 ('92.10)	金昌男
92-30	Korea's Recent Foreign Exchange Rate Systems: ('92.12)	김진천
93-01	GATT 및 主要先進國의 反덤핑制度和 우리나라 制度의 改善方案 ('93.01)	蔡 旭
93-02	우리나라 市場開放政策의 特徵과 效果 ('93.01)	韓弘烈
93-03	中國 國營企業 改革의 展開와 展望 ('93.02)	金時中
93-04	日本의 技術貿易 ('93.02)	俞鎮守
93-05	豆滿江地域 開發構想에 대한 論議와 展望	金學洙
93-06	블럭化時代의 亞·太經濟協力	共 同
93-07	中國의 技術導入 政策과 中日技術協力	吳勇錫
93-08	러시아의 軍需産業 民需轉換에 관한 研究 ('93.03)	朴濟勳
93-09	日本市場에서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3)	康仁洙
93-10	日本 換率政策의 方向과 우리나라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93.03)	金宗萬
93-11	日本 自動車産業의 競爭力 強化와 下請分業生産의 役割('93.04)	任千錫
93-12	先物去來 上場品目 選定에 관한 研究 ('93.04)	曹正錄
93-13	우리의 對舊蘇聯 經濟協力 基本戰略 ('93.04)	李昌在
93-14	外換市場介入政策의 效果分析과 換率政策에 대한 政策示唆點 ('93.05)	金泰俊
93-15	中國의 工業發展戰略과 産業政策 ('93.05)	金益洙
93-16	中國 輸入構造變화와 우리의 對應方向 ('93.05)	鄭永祿
93-17	EC 經濟統合과 우리나라의 輸出構造 變化 ('93.05)	閔充基
93-18	韓美間 産業構造의 特性이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93.08)	成克濟
93-19	NAFTA의 出帆과 美國 輸入市場에서와 韓國과 멕시코의 競爭力 比較 ('93.08)	金尙謙
93-20	EC市場에서의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8)	金博洙
93-21	韓·中 環境協力에 관한 研究('93.09)	共 同
93-22	知的財産權 國際化의 方向과 課題('93.11)	王允鍾
93-23	日本의 對아시아 技術移轉 戰略과 韓國의 對應 ('93.11)	洪裕洙

93-24	러시아 極東地域의 經濟와 우리의 經濟協力方案('93.11)	李昌在
93-25	UR 총집검(增補版) ('93.12)	共同
93-26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6]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現況과 國際化 方向 ('93.12)	孫讚鉉
93-27	南·北韓의 統一에 비추어 본 獨逸 信託管理公社의 役割과 意義 ('93.12)	朴成勳
93-28	臺灣企業 中國投資의 現況과 波及效果 ('93.12)	金時中
93-29	CIS 域內 交易 및 金融關係 分析 ('93.12)	朴濟勳
93-30	日本企業의 對中直接投資의 動向과 戰略 ('93.12)	金益洙
93-31	最近 우리나라의 日本技術 導入現況과 政策方向 ('93.12)	任千錫
93-32	環境關聯 經濟的 手段의 運用 現況 및 展望 ('93.12)	李鎬生
93-33	亞·太經濟協力の 새 方向 ('93.12)	共同
93-34	交易條件變化와 資本自由化의 效果分析 ('93.12)	表鶴吉 權喆寧
93-35	21世紀를 향한 韓·日間 技術分業과 技術協力の 基本方向 ('93.12)	朴宇熙 森谷正規
93-36	中國의 對外貿易과 韓·中 輸出競爭 ('93.12)	吳勇錫
93-37	資本自由化와 換率政策方向 ('93.12)	孫正植 朴大槿
93-38	東歐改革의 進展과 經濟協力 擴大戰略 ('93.12)	鄭甲泳
93-39	資本自由化에 관한 事例分析：開途國과 先進國의 경험('93.12)	金仁竣
93-40	亞·太經濟協力の 深化方案 ('93.12)	共同
93-41	東歐 主要國의 民營化 研究 ('93.12)	尹健秀
93-42	우리나라의 對東歐 交易現況과 展望 ('93.12)	權寧堦
94-01	戰略的 提携와 技術革新의 國際化 ('94.01)	洪裕洙
94-02	NAFTA 原產地規程의 意義와 政策示唆點 ('94.01)	韓弘烈
94-03	統一이 東西獨의 産業立地와 産業構造에 미친 影響 ('94.02)	裴眞永
94-04	議題 21과 우리나라의 持續可能開發 戰略 ('94.02)	韓宅煥
94-05	WTO出帆과 新交易秩序-분야별 內容과 示唆點 ('94.07)	共同
94-06	韓美間 科學技術協力 強化方案 研究 ('94.11)	洪裕洙
94-07	外國人 直接投資의 技術移轉效果에 관한 研究 ('94.11)	王允鍾
94-08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Progress in Conceptualization and in Praticice ('94.12)	共同
94-09	21世紀 東北亞經濟協力を 위한 推進戰略 ('94.12)	李昌在
94-10	韓中經濟協력과 在中國同胞의 役割 ('94.12)	金時中
94-11	ASEAN 主要國의 外國人直接投資誘致와 그 示唆點 ('94.12)	魯在峯
94-12	韓美間 中長期 産業技術協力方案 ('94.12)	洪裕洙

- | | | |
|-------|--------------------------------------|---------|
| 94-13 | 知的財産權과 競爭政策의 國際的 調和 ('94.12) | 丁相朝 |
| 94-14 | 外換 自由化와 換危險管理 ('94.12) | 朱尙榮 |
| 94-15 | 統一以後 東獨經濟의 産業構造變化 研究 ('94.12) | 金龍龜·朴成勳 |
| 94-16 | 戰略的 貿易政策으로서의 R&D 補助金 政策의 方向 ('94.12) | 李正淵 |

■ 政策資料

- | | | |
|-------|--|------------|
| 90-01 | 蘇聯·中國 및 東歐의 變化와 對應 ('90.01) | 共同 |
| 90-02 | 1990年代 國際經濟 環境 變化와 對應戰略 ('90.06) | 共同 |
| 90-03 |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協商의 進展狀況과 우리의 對應方案('90.08) | 朴泰鎬 |
| 90-04 | 中國의 經濟改革에 있어서 分權化 및 市場經濟化의 展開 ('90.10) | 蘇侖變 |
| 90-05 | 美國·日本의 金融自由化와 政策示唆點 ('90.11) | 李長榮 |
| 91-01 | 北韓의 에너지 需要와 供給 ('91.03) | 張榮植 |
| 91-02 | 北韓의 貿易 및 對外經濟 ('91.03) | 姜正模 |
| 91-03 | 蘇聯 經濟改革政策과 우리의 對應 ('91.05) | 李善煥
方燦榮 |
| 91-04 | 臺灣·日本의 金融自由化와 政策示唆點 ('91.09) | 李長榮 |
| 91-05 | 外國人 直接投資의 生産性 效果分析 ('91.10) | 崔仁範
玄定澤 |
| 91-06 | 韓國의 對베트남 經濟協力 基本戰略 ('91.11) | 金學洙 |
| 91-07 | 蘇聯建設市場과 韓國建設業體의 進出 可能性 分析 ('91.12) | 朴康植 |
| 91-08 | 技術障壁에 대한 國際的 論議와 對應方案 ('92.12) | 孫讚鉉 |
| 92-01 | 中國工業經濟效率과 工業體制改革에 관한 研究 ('92.01) | 共同 |
| 92-02 | 獨立國家聯合의 出帆과 韓·蘇 經濟協力 ('92.01) | 朴濟勳 |
| 92-03 |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과 活性化方案 ('92.03) | 金南斗
柳在元 |
| 92-04 | EEA 創設의 問題點과 域外國들에 대한 影響 ('92.04) | 閔充基 |
| 92-05 | 아시아 主要 開發途上國의 非關稅障壁 ('92.07) | 魯在峯 |
| 92-06 | EC 海運産業의 變化와 示唆點 ('92.08) | 閔充基 |
| 92-07 | 海外直接投資의 現況과 政策課題 ('92.09) | 共同 |
| 92-08 | 클린턴 次期 美國大統領의 經濟政策 ('92.11) | 共同 |
| 92-09 | 對內外與件 變化와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 ('92.12) | 金益洙 |
| 92-10 | 1993年度 國際經濟環境變化展望과 對應戰略 ('92.12) | 共同 |
| 93-01 | 南北韓 物資交流와 原產地規程 ('93.05) | 韓弘烈 |
| 93-02 | GATT 最惠國待遇 原則과 南北韓 物資交流 ('93.07) | 韓弘烈 |
| 93-03 | 韓國의 無償援助와 有償援助의 連繫方案 ('93.07) | 金學洙 |
| 93-04 | EC 競爭政策 變化와 우리의 對應方案 ('93.08) | 閔充 |
| 93-05 | 최근 世界經濟의 沈滯와 우리經濟에의 示唆點 ('93.09) | 共同基 |

93-06	西方의 對러시아 經協전략과 示唆點 ('93.10)	朴濟勳
93-07	主要國의 先物市場 規制定策 ('93.10)	曹正錄
93-08	國際貿易紛爭의 現況과 GATT의 役割 ('93. 11)	蔡 旭
93-09	主要國의 輸出支援制度 現況과 우리制度의 改善方案 ('93.12)	金準東
93-10	貿易과 競爭政策: OECD의 論議 ('93.12)	金廷洙
93-11	러시아 經濟改革의 進行 狀況과 評價 ('93.12)	李昌在
93-12	地域主義 深化와 韓國의 選擇 ('93.12)	魯在峯
93-13	國內 製造業分野 外國人投資企業의 現況 및 特性 ('93.12)	金寬濤
93-14	日本의 金融自由化와 엔貨의 國際化 ('93.12)	權才重
93-15	競爭政策에 관한 國際的 論議와 獨占禁止法의 域外適用 ('93.12)	俞鎮守
93-16	通貨先物市場 導入에 관한 研究 ('93.12)	金哲三
93-17	OECD 主要國의 科學技術政策 ('93.12)	洪裕洙
94-01	1994年度 世界經濟 展望과 對外經濟政策課題 ('94.01)	
94-02	EC通貨統合의 進展과 波及影響 ('94.01)	曹琮和
94-03	國際金融 環境變化와 企業의 國際金融市場 活用戰略 ('94.01)	曹正錄
94-04	技術導入과 테크노마트의 活用 ('94.03)	王允鍾
94-05	戰換期의 臺灣經濟 ('94.02)	柳在元
94-06	우리經濟의 國際化 ('94.04)	金博洙
		金廷洙
94-07	新三低-舊三低의 比較分析과 政策對應('94.5)	共 同
94-08	主要國의 投資自由地域 運營現況과 우리制度의 改善方案 ('94.05)	金準東
94-09	北韓의 交易現況과 對外經濟政策 ('94.10)	金尙謙
94-10	對日貿易 赤字國의 對應실태와 示唆點-臺灣의 경우 ('94.10)	任千錫
94-11	環境産業의 國際動向 및 政策示唆點 ('94.10)	張台求
94-12	UN 持續開發委員會의 論議現況 및 政策課題 ('94.11)	李鎬生
94-13	1995年度 世界經濟展望과 對外經濟政策課題 ('94.12)	共 同
94-14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94.12)	王允鍾
94-15	서비스交易과 세이프가드 ('94.12)	蔡 旭
94-16	글로벌化 時代에서의 輸出과 海外直接投資 ('94.12)	金準東
94-17	豆滿江地域開發事業과 韓半島 ('94.12)	金益洙
94-18	러시아 經濟改革의 地方別 波級影響 ('94.12)	李昌在
94-19	金融監督規制의 現況과 對應方案: 資本適正性을 中心으로 ('94.12)	曹琮和
94-20	ASEAN 自由貿易地帶의 結成과 韓國의 對外貿易政策 ('94.12)	吳尙勉
94-21	OECD 主要國의 ODA 支援現況과 韓國의 對應戰略 ('94.12)	金學洙

- 94-22 東北亞 環境協力の 推移와 課題 ('94.12) 韓宅煥
- 94-23 서비스交易에 있어서의 交易障壁
-美國, 日本, EU의 서비스 讓許表를 중심으로- ('94.12) 禹榮洙
- 94-24 美國 通商政策의 基調와 對東아시아 貿易自由化 方案 ('94.12) 金尙謙
- 94-25 엔高下에서의 日本企業의 對應實態와 示唆點 ('94.12) 任千錫
- 94-26 專門職業서비스 供給者의 資格認定 ('94.12) 金址鴻
- 94-27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A Review of the Current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94.12)
Eugene John Park
- 94-28 海外資金調達の 國內巨視經濟에 미치는 影響 ('94.12) 張義泰

■ 세미나資料

- EC 統合과 政策對應 ('90.1) 共同
- 우루과이라운드 協商과 우리의 對應方案 ('90.4) 朴泰鎬 編
- 韓國과 社會主義圈의 關係發展 및 南北韓 關係變化의 展望 ('90.6) 吳勇錫 編
- Jang-Won Suh and Jae-Bong Ro (eds.),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The Way Ahead ('90.11)
- EC統合과 우리의 대응방안 ('91.2) 閔充基 編
- Taeho Bark and Wook Chae (eds.), Uruguay Round: Unresolved Issues and Prospects ('91.9)
- Jang-Won Suh (ed.),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Perspectives and Challenges ('91.12)
- Chung Ki Min (e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EC and Korea: Problems and Prospects ('92.6)
- Jehoon Park, Russia's Reform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92.9)
- Jin Young Bae (ed.), Two Years Since German Unification ('93.2)
- Chang-Jae Lee, Regional Context for Korea's Dynamism: Certainties vs. Uncertainties ('93.12)
- Bak-Soo Kim, The Asian Dimension of EC Integration ('93.12)
- 94-01 韓日經濟協力の 新構想 ('94.6) 任千錫 編
- 94-02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想 ('94.6) 金時中 編
- 94-03 新세계무역체제와 한국 - 서덜랜드 GATT사무총장 초청강연 ('94.09) 孫讚鉉 編
- 94-04 Korea-U.S.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Forum 2 ('94.11) 洪裕洙 編
- 94-05 Trade-Environment Issues and Korea's Alternatives ('94.12) 韓宅煥 編

■ Working Paper

- Chungsoo Kim,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ies in the Asia-Pacific: Working Mechanism and Linkages ('90.8)
- Lynn Krieger Mytelka, Strategic Partnering Activity by European Firms through the ESPRIT Program ('90.8)
- Sung Yeung Kwack, Models of Exchange Rate Behavior: Application to the Yen and the Mark ('91.1)
- Taeho Bark, Anti-dumping Restrictions against Korean Exports: Major Focus on Consumer Electronic Products ('91.5)
- Yoo Soo Hong, Implications of Economic Reforms in CEECs for DAEs: with Emphasis on the Korean Case ('91.7)
- Jang Hee Yoo, The ANIEs-an Intermediate Absorber of Intraregional Exports? ('91.7)
- Taeho Bark,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and the Korean Economy ('91.10)
- Janghee Yoo, Changing World Trade Environment and New Political Economics ('92.9)
- In-Soo Kang, Economic Effects of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Policy(ISDP) ('93.1)
- Jai-Won Ryou and Byung-Nak Song,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outheast Asia ('93.3)
- Sung-Hoon Park, German Economy after Unification-Facts,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Korea ('93.6)
- Wook Chae, A Note on Korea's Anti-dumping System and Practices ('93.6)
- Chung-Ki Min, Structural Changes in Korea's Exports and the Role of the EC Market ('93.10)
- Joo-Sung Jun, Tax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93.12)
- Yoo-Soo Hong, Leveraging Technology for Strategic Advantage in the Global Market: Case of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y ('93.12)
- Chang-Jae Le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for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94.01)
- Je-Hoon Park,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n and Russia ('94.08)
- Technology Transfer : the Korean Experience ('94.11)

세미나 資料 95-01

中國의 改革 開放과 韓中經濟協力の 未來

1995年 4月 17日 印刷

1995年 4月 19日 發行

發行人 柳 莊 熙

發行處 對 外 經 濟 政 策 研 究 院

서울市江南區大峙3洞 942-1番地君子빌딩 14層-18層

電話：528-5555 FAX：528-5511, 5522

登錄：1990年 11月 7日 第 16-375號

印 刷 오름시스템(주) 전화：273-7011

* 本 報 告 書 內 容 的 無 斷 轉 載 · 譯 載 · 複 寫 書 禁 止

값 5,000원

ISBN 89-322-3005-6